

리아호나



계획을 아는 것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주는가! 32쪽

선견자 둘, 조셉 스미스,
몰몬경, 10쪽

100주년을 기념하며:
전 세계의 가정의 밤, 26쪽

외설물의 도전을
재정의함, 50쪽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33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햇불을 꺼뜨리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하십시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성:
 자애와 사랑이 충만하심

특집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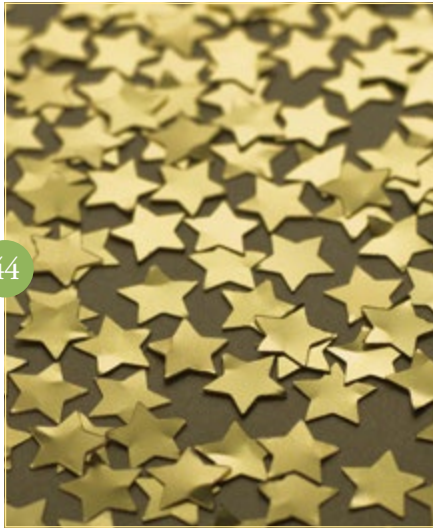
- 10 선견자 조셉
 리처드 이 텔리 이세, 로빈 에스
 젠슨 및 마크 애셔스트-맥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어떻게
 선견자로서의 자신의 부름을
 수행하며 물몬경을 번역할 수
 있었는가?
- 18 세상을 바꿀 글자
 노먼 시 힐
 가나의 한 지방부 평의회가 기울인
 문맹 퇴치 노력으로 성도들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
- 22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대로
 이끄는 법을 청소년에게 가르침
 캐럴 에프 맥쿱키
 청소년은 미래의 교회 지도자이지만,
 지금부터 지도자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 26 가정의 밤을 기념하며
 세계 곳곳의 회원들이 가정을
 강화하는 이 중요한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아본다.

- 32 구원의 계획: 우리를 인도하는
 지식이 담긴 성스러운 보물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지지하는
 것은 전세에서 성공의 열쇠였으며,
 이생에서도 역시 성공의 열쇠이다.

교회 본부 기사

- 8 교회에서 봉사함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가?
 브룩 바턴
- 9 단상
 호박인가, 멜론인가?
 레이첼 콕스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80 다시 만날 때까지
 안전한 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표지
 앞표지 사진 삽화: 코디 벨
 앞표지 안쪽 사진: StockFood/텔벗, 바버라.
 뒤표지 안쪽 사진: 티퍼니 마일런 톱.



44

44 진정한 의도로 생활함

랜들 엘 리드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면, 더욱 신중하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48 신앙, 봉사, 그리고 빵 한 덩어리

니상카(니쉬) 무뚜 무달리지

나는 선교사들과 함께 가르치러 가고 싶었지만, 내가 과연 그곳에 갈 방편이 있을지 의문이었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힌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죠?

50 외설물의 뒷에서 벗어나기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성적 표현이 담긴 대중 매체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원리

56 올바른 때에 올바른 장소에서

우리는 때로 주님께서 특정한 이유로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을 지금 있는 곳에 두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58 포스터

여러분의 생명의 책

59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창세기 1:26~27

60 진리를 찾아서

펑 후아

나는 자라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배웠으나, 그 사실을 스스로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62 경전에 나오는 놀라운 청년 청년

기젤라 거디에

경전에 나오는 청소년들도 여러분처럼 시련과 유혹에 직면했다. 여러분은 이들이 보인 신앙과 용기의 모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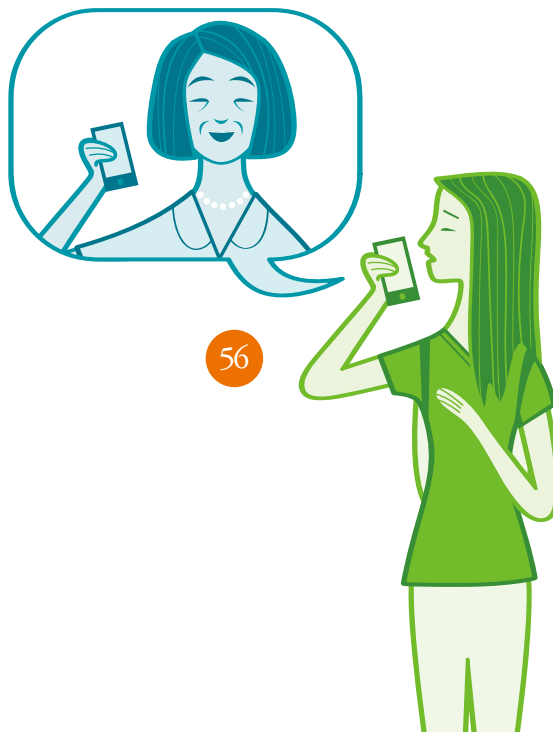
64 질의응답

편찮으신 엄마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결국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일에서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56



72

66 이기는 결정

머리사 워드슨

미란다의 마침내 이기는 팀에서 출전할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일요일에도 운동할 수 있었을까?

68 질문 코너

교회 회원이라서 좋은 점은?

69 우리들 이야기

70 경전 속으로

베드로, 고넬료, 그리고 천사 에린 샌더슨

72 도움을 찾음

킴벌리 리드

테이트는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았지만, 부모님께 그 사실을 알리기가 두려웠다.

74 오, 이런! 이제 어떻게 하지?

해로운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75 풀의 호박

풀은 자신이 결코 형처럼 선교 사업을 나갈 만큼 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79 음악

세상에 하나뿐인 나

젠 핀보로우, 마이클 에프 무디

2015년 10월호 제52권, 제10호

리아호나 12570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아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사도 정회원: 라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엠 라셀 베라드,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쿼,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엠 앤더슨

편집인: 조셉 더블유 시타티

고문: 랜달 케이 베네트, 크레이그 에이 카든, 크리스토퍼 콜든, 래리 알 로렌스, 제임스 비 마르티노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와너

운영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스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매간 베르호프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리나 비에티,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린트, 로리 플라, 캐리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질 켈링, 살렛 라카발, 린다 앤 레빈,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존슨 오데커, 조슈아 제이 퍼거, 켈 펜보로우, 리차드 엠 톨니, 폴 벤덴버그, 머리아 윌슨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라스, 맨디 엠 벤틀리,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핑클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킵 엠 무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데이, 케이 니콜 워크호스트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거 오온

제작 부장: 제인 엠 피터스

제작 팀: 콘니 바소프 브릿지, 줄리 버넷, 캐티 던컨,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카비, 지니 제이 닐슨, 가일 터데 러퍼티

사건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부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미국, 캐나다 외 지역에서는 store.lds.org에서, 또는 현지의 교회 배부 센터, 혹은 외국,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를 신청하거나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59호, 제52권, 제10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5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주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liahona-korea@ldschurch.org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kr "물품신청" **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9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광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liahona@ldschurch.org 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아호나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 "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불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루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스와힐리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투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5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시각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October 2015 Vol. 39 No. 10.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만한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두 가지 예이다.



가정의 밤을 기념하며*, 26쪽: 매주 가정의 밤을 하든, 아니면 이번이 처음이든 간에, 가정의 밤을 기념하는 특별 가정의 밤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이 기사를 읽고 세상 곳곳의 가족들이 어떻게 복음을 배우면서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지 알아본다. 어떻게 하면 가정의 밤을 하겠다는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토론해 본다. 가족의 필요 사항을 충족하려면 가정의 밤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이 100년 전통의 가정의 밤을 여러분 가정의 최우선순위로 삼겠다고 가족이 함께 다시 다짐한다.

“도움을 찾음”, 72쪽: 가족이 함께 이 기사를 읽고 다음 질문을 토론해 본다: (1) 어린이들은 어떤 종류의 사진이나 매체와 접하게 되는가? (2) 이런 것 중 보거나 몰두하면 좋지 않은 것은 어떤 것들인가? (3) 보거나 들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 것을 접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아이디어(그 상황에서 벗어남, 부모에게 말함, 봉사 활동 등)를 얻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74쪽의 “갑소사! 이제 어떡하지?”에 나오는 전략을 검토한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는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가정의 밤 제언, 일요일 공과 도움말, 그리고 친구나 가족과 나눌 수 있는 내용을 찾으려면 Facebook.com/liahona.magazine을 방문한다.

* 페이스북 페이지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만 제공됩니다.

이번 호 주제

각 숫자는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정의 밤, 26

개종, 60

결정, 9, 44, 58, 66

결혼, 32

경전, 18, 59, 62

계시, 80

교회 부름, 8

교회 역사, 10

교회 회원 수, 68

계약전서, 59

구원의 계획, 32

근면, 4

기도, 43, 64, 72

동정심, 50

물문경, 10, 44

미디어, 50, 72, 74

봉사, 8, 56

사망, 64

선교 사업, 44, 48, 60, 70

선지자, 10, 80

선택의지, 32

성전, 69

신약전서, 70

안식일, 66

영감, 40, 41, 42, 56

예수 그리스도, 7

외설물, 50, 72

우선순위, 9

읽고 쓰는 능력, 18

자애, 7

조셉 스미스, 10

지도력,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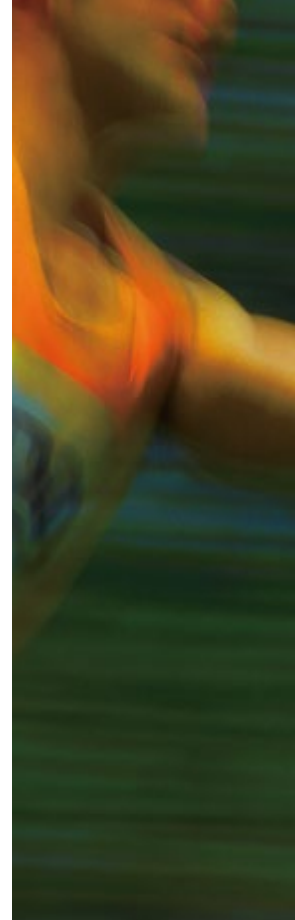
청소년, 22, 62

평의회, 18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햇불을 꺼뜨리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하십시오



고대 그리스에는 주자들은 **햇불경주**[*lampadedromia*]라는 이어달리기 경주가 있었습니다.¹ 그 경주에서 주자들은 각기 손에 햇불을 들고 그 팀의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을 지날 때까지 그것을 다음 주자에게 인계했습니다.

단순히 가장 빨리 달린 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햇불을 꺼뜨리지 않고 결승선에 가장 먼저 도착한 팀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한 가지 심오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경주에서는 출발도 중요하지만, 햇불을 꺼뜨리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힘차게 출발했던 솔로몬

힘차게 출발했던 사람의 예로는 위대한 왕 솔로몬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여호와와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습니다]”(열왕기상 3:3).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했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열왕기상 3:5)라고 이르셨습니다.

재물이나 무병장수를 구하는 대신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열왕기상 3:9)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주님을 크게 기쁘게 했기에 주님은 지혜는 물론이고 헤아릴 수 없는 부와 장수로 솔로몬을 축복했습니다.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롭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는 힘차게 결승선을 지나지 못했습니다. 슬프게도 인생 말년에 “솔로몬이 여호와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 여호와를 온전히

...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열왕기상 11:6)

우리 자신의 결승선을 통과함

시작을 하고도 끝내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 조절? 운동? 매일 경전을 읽겠다는 결심?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은 제자가 되겠다는 각오?

1월에 결심을 하고서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아니 몇 달 동안 열정적인 각오를 갖고 지켜 나가다가 10월이 되면 우리 결심의 불꽃이 차디찬 재로 변하기 직전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저는 자기가 산산조각으로 찢은 종이 한 장 옆에 누워 있는 개 한 마리를 그린 재미난 그림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 종이에 “개 훈련 증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좋습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최고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결심을 산산조각 내고, 버리고, 잊어버립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경주에서 낙오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경주를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요, 결승선을 넘겠다고, 그것도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들고 지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태복음 24:13)

구주께서 우리 시대에 하신 약속을 이렇게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 햇불이 꺼진 채로 결승선을 넘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으리니, 이



우리가 일어나서 구주를 향해 이동하는 한, 우리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그 경주에서 이기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횃불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횃불은 바로 세상의 구주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결코 희미해질 수 없는 빛입니다. 그 빛은 어둠을 삼키고, 우리 상처를 치유하고, 심지어 가장 깊은 슬픔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불꽃을 내며 타오르는 빛입니다.

그 빛은 우리의 이해력을 능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미 출발한 길의 결승선을 통과하기를 빕니다. 우리 구주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우리는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기쁘게 결승선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4:7 참조; 또한 니파이후서 31:20 참조)

결코 꺼지지 않는 빛

우리는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심지어 포기하고 난 후에, 용기를 잃고 우리의 빛은 꺼졌다고, 경주에서 패배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의 빛은 꺼질 수가 없다고 간증 드립니다. 그것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나며 우리가 마음을 그분께 돌리기만 한다면, 우리 마음을 다시 밝혀 줄 것입니다.(열왕기상 8:58 참조)

우리가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크게 넘어지느냐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빛은 늘 밝게 타오릅니다. 칠혹 같은 밤에도 우리가 그분을 향해 걷기만 한다면, 그분의 빛은 그늘을 소멸시키고 우리 영혼을 다시 점화시킬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이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경주에서 패배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도에 굴복하거나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주

1. *Harpers Dictionary of Classical Antiquities*(1898), "Lampadromia," www.perseus.tufts.edu/hopper. 파우사니아스는 일반적인 경주와는 다른 방식의 횃불 경주를 묘사했는데, 횃불을 든 경주자는 각 부족에서 한 사람씩 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횃불을 넘겨주지 않는 방식의 경주였다. 그러나 *lampadromia*에서처럼, 횃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 결승선에 도달한 사람이 승자였다.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인생 "경주"에서 어디쯤 왔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의 횃불은 밝게 빛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빛은 "어둠을 삼키고, 우리 상처를 치유하고, 심지어 가장 깊은 슬픔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불꽃을 내며 타오르는 빛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구절을 읽어도 좋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빛이 과거에 어떻게 그들 생활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 지금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토론해 본다.

여러분의 횃불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30일 간의 시험

바빠 생활하는 교회 청소년은 매사를 습관적으로 하기가 쉬운데, 특히 영적인 면에서 그러하다. 거의 날마다 같은 방식으로 경전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다 보면 왜 영적으로 정체되었는지 모를 때가 있다.

영적 횃불을 계속 밝게 타오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뜻 깊은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란 말처럼 쉽지는 않으므로, 여기 영적 진보를 계속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를 제안한다: 전에 한번도 해 보지 않은(또는 거의 하지 않은) 복음 관련 활동을 생각해 보고 한 달 동안 날마다 하기로 다짐한다. 작은 변화가 지속되기 쉬우므로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 익숙하지 않은 영적인 일을 하려면 더 큰 신앙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신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불러들이고,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더 큰 신앙과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다음은 시작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이다.

-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소리 내어 기도하려고 힘쓴다.
- 15분 일찍 일어나 학교 가기 전에 경전을 읽는다.
- 지난 연차 대회 말씀을 읽는다.
- 물몬경에 나오는 성구를 소셜 미디어에 게재한다.
- 늘 듣는 음악 대신에 찬송가나 교회 음악을 듣는다.

어린이

여러분의 횃불을 더 밝히십시오

오래 전 그리스에는 경주자가 횃불을 들고 달리는 경주가 있었는데, 누구든 횃불을 꺼뜨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 승자였어요.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인생이 이 경주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든 횃불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힘쓰면 우리의 횃불은 더 타오를 거예요.

외로워 보이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거나 인사를 한다.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화를 낸다

몸을 잘 돌본다

형제나 자매를 놀린다

선지자에게 순종한다

실수하면 포기한다

누군가를 도와준다



이 소년이 예수님처럼 되고 횃불을 더 밝히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적힌 동그라미에 색칠해 보세요.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무엇을 나눌지 알기 위해 노력한다. 구주의 신성한 속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여러분이 방문 교육을 통해 돌보는 자매들을 축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reliefsociety.lds.org에서 더 많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신앙, 가족, 구제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최근에 미망인이 된 한 자매는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 준 방문 교사들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이런 글을 썼다. ‘저는 다가가서 이야기할 사람, 누군가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 그런데 그들은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를 위로했고, 저와 함께 울며 저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 처음 몇 달간 외로워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제가 절망의 나락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또 다른 자매는 방문 교사에게서 참된 사랑을 받으며 느낀 점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 자매님은 저를 단지 방문 대상자 명단에 있는 하나의 숫자뿐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해 진심으로 마음을 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²

이 자매들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후기 성도 여성들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1924~2015) 회장이 전한, 다음 말씀이 참됨을 증언할 수 있다. “[가족]이 어디로 가든 교회 가족이 이들을 기다린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이들은 도착하는 날부터 형제는 신권 정원회에, 자매는 상호부조회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³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성: 자애와 사랑이 충만하심

다음은 구주의 거룩한 속성을 특징으로 다루는 방문 교육 메시지 연재 기사이다.

경 전 안내서는 자애를 “가장 높고, 가장 숭고하며 가장 강력한 종류의 사랑”이라고 정의한다. (“자애”) 자애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그분과 같이 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삶에서 그분의 순수한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분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사랑이란 기대를 저버린 사람을 참을성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쉽게 화 내려는 충동을 이겨냅니다. 사랑은 부족함과 결점을 받아들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랑은 신체 외모를 너머 시간이 가도 희미해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바라봅니다. 사랑은 사람을 구분 지으려는 충동을 거부합니다.”¹



물론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진리를 배웁니다.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인즉,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 우리로 이 소망을 갖게 하며, 그가 순결하신 것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게 할지이다.”(모로나이서 7:48)

보충 성구

요한복음 13:34~35; 고린도전서 13:1~13; 니파이전서 11:21~23; 이터서 12:33~34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4쪽.
2.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 (2011), 119~120쪽.
3. 내 왕국에 속한 딸들, 87쪽.

생각해 볼 점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랑과 자애의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가?

브룩 바턴

잃어버린 양에 대한 교훈을 통해 어떻게 하면 부름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이해하게 되었다.

23 세 때 나는 기혼자 학생들이 다니는 와드에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부적합하다고 느끼면서도 최선을 다하리라 소망했던 것을 기억한다. 열성적으로 기꺼이 봉사하고자 했지만 내가 좋은 지도자가 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상호부조회 회장이 되고 몇 달이 지난 후 나는 내가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느꼈다. 자매들과 친해지고 싶었고 그들의 개인적인 필요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랐으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다.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근심하는 바를 토로했다. 다가가고 싶은 모든 자매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내 역할을 다하려 하다 보면 내 몸이 다섯 개였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다. 근심을 가볍고 익살스럽게 묘사하려 애썼지만, 좌절감에 이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독님은 미소를 지으며 내가 여태껏 받은 조언 중에 가장 훌륭한, 지도력에 관한 조언을 해 주었다.

감독님은 “양 떼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구십구 마리를 남겨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 목자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누가복음 15:4~7참조) 하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비유에는 참으로 많은 지혜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라고 하며 감독님은 말을 이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구십구 마리 양을 남겨 두어도 괜찮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 후 감독은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자매님이 가더라도 구십구 명은 서로를 돌볼 훌륭한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북돋아 주고 서로 잘 뭉칠 것입니다. 저는 자매님께 길을 잃어버린 듯한 사람에게 집중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머지는 괜찮을 것입니다.”

나는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 떼를 모두 한꺼번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 무리에게 돌아오도록 권유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이뤄질 수 있었고 나는 그분 손에 들린 도구가 될 수 있었다.

감독님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내가 왕국에서 어떻게 봉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또한 구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봉사함으로써 부름을 수행하며 강화되는 영적인 성취감을 맛보았다. 성신의 권능을 통해 감독님은 내가 잘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는 큰 은사를 주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신권 지도자에게 영감을 구할 때, 그들은 어떻게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할지 우리에게 보여 주도록 영감을 받을 것임을 간증한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호박인가, 멜론인가?

레이첼 콕스

그릇된 선택이란 없는 때가 있다. 다만 선택이 있을 뿐.

아버지는 지난해 심은 호박씨가 올 여름 멜론밭 가운데서 싹이 난 것을 보고 무척 놀라셨다. 멜론은 꽤 잘 자라고 있었지만, 호박도 이에 못지않았다. 호박이 너무 잘 자라고 있었기에, 사실 아버지는 호박이 계속 자라도록 놔둘까 하는 생각에 끌리셨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호박이 멜론의 성장을 가로막으리라는 것을 아셨기에 선택을 하셔야 했다. 아버지는 호박을 뽑아내어 멜론이 더 무성해지게 하거나, 아니면 호박이 자라도록 놔두어 멜론을 밀어내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었는데, 두 번째 선택은 두 작물 모두에게서 더 적은 수확을 거둘 가능성이 컸다. 호박인가, 멜론인가? 이 경우는 두 가지 좋은 것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아버지는 두 가지를 고려한 끝에 탄실해지는 호박을 뽑아내기로 하셨다. 싹이 늦게 나기도 했지만, 놀라움을 안긴 호박보다는 계획한 멜론을 더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리는 선택에 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가족, 친구, 고용주, 또는 우리가



사귀거나 결혼할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좋은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올바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특히 그릇된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을 때 더욱 그렇다. 그릇된 선택을 할까 봐 두려워하면 무력하게 되며, 또 그런 두려움은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은 그릇된 선택이란 없는 때가 있다. 다만 선택이 있을 뿐. 아버지의 경우, 그분은 더 가치 있는 것을 토대로 결정을 내리셨다. 아버지는 호박이 죽는 것을 바라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호박이 멜론에 해를 끼치면 후회하리라는 것을 아셨다.

인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선택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일

때도 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지? 오늘 무슨 색 옷을 입지? 우리는 두 가지 좋은 것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내 아버지께서 그러셨듯이 단순히 “내가 더 가치를 두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런 다음,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면 주님이 고쳐 주시리라 믿으며 결정을 내리고 신앙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무척 중요하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우리는 계속 결정해야 합니다. 현명한 결정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용기와 “예” 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정은 운명을 좌우합니다.”(“선택에 관한 세 가지 원리”,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68쪽) 우리가 이런 종류의 선택을 해야 할 때, 다음과 같이 물어보는 게 좋다. “주님은 무엇에 더 가치를 두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안다면, 우리의 가치를 주님과 일치시킨 다음, 그 선택에 따라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선견자

조셉

조셉 스미스가 어떻게 선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몰몬경을 번역했는지 역사 기록에 명확히 나옵니다.

리처드 이 텔리 이세, 교회 역사가 겸 기록자 보조,
로빈 에스 젠슨 및 마크 애서스트 맥기, 교회 역사부

18 30년 4월 6일, 조셉 스미스가 그리스도 교회(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불림)를 조직하던 날에,¹ 그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보라, 너희 가운데 계속해 나가는 기록이 있을지니, 그 가운데서 너 [조셉 스미스]는 선견자 … 라 일컬[어지리라]”.(교리와 성약 21:1)

조셉 스미스가 새로 조직된 교회에서 선견자로서 수행한 역할 중 가장 눈에 띄는 표징은 몰몬경입니다. 그는 거듭 이 책이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² 교회가 조직되기 전에 조셉과 가장 가까웠던 많은 사람들이 몰몬경이 세상에 나오는 과정을 목격했으며, 선견자라는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선견자의 의미

젊은 선지자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견자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조셉은 성경을 읽는 가족 사이에서 자라났는데, 성경에는 선견자란 말이 거듭 나옵니다. 일례로 사무엘상에서 저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사무엘상 9:9)

성경에는 또한 사람들이 지팡이,³ 장대에 매단 놋뿔(의료업의 상징으로 널리 사용됨),⁴ 에봇(두 보석을 붙인 제사의 의복 일부),⁵ 우림과 둠뿔⁶과 같은 물체를 통해 영적인 나타내심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셉과 그의 아내 에머 헤일 스미스가 몰몬경의 번역 기간 중에 한동안 이 집의 일층에서 살았다. 집의 오른쪽에 있는 이층 부분은 나중에 증축되었다.



조셉 스미스는 살아 있을 당시에는 수천 명의 회원들에게 그리고 죽은 후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알려져 왔다.

“보는 것”과 “선견자”는 조셉 스미스의 가족의 문화인 동시에 미국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19세기 초기에 살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북미 이민자들이 가져온 영국과 유럽의 혼합된 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아,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선견자의 돌과 같은 물체를 통해 영적 현시를 “보거나”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⁷

젊은 조셉 스미스는 선견자의 돌을 사용해 잃어버렸거나 감춰진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관념을 포함한, 당대의 잘 알려진 풍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성경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고대에 물체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신앙을 집중시키거나 영적으로 교통하셨다고 나오기 때문에, 조셉과 주변 사람들은 그들 시대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조셉의 부모인 조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는 가족이 이 문화에 몰두해 있었고 물체를 이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단언했으며, 스미스 가족이 살았던 뉴욕 주 팔마이라와 맨체스터 마을 사람들은 스미스 가족이 1827년에 펜실베이니아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자 할 때에는 조셉을 찾아왔습니다.⁸

19세기에 조셉이 살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종교 생활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선견자의 돌은 이상할 수 있으며, 학자들은 이 시기의 조셉의 삶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영적 문제보다는 과학 및 관찰할 수 있는 세계를 강조하던 시대인, 계몽주의 혹은 이성 시대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아 조셉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돌이나 지팡이 같은 물체를 사용하는 것이 미신적이거나 종교적인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조셉은 자신의 놀라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이 본 시현과 기타 영적 경험을 강조했습니다.⁹ 그에 반해 예전 동료들은 그런 관행을 점차 인정하지 않는

세계에서 그의 명성을 훼손하기 위해 그가 초기에 선견자의 돌을 사용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조셉과 그 밖의 초기 회원들은 전도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예비 개종자들이 이성 시대를 맞아 종교를 이해하는 방식에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전도할 때, 민속 문화의 영향에 대해 초점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셉은 경전화된 계시에서 여전히 선견자의 돌과, 그 밖의 선견자 관련 도구는 물론 그것들을 사용하여 일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중요하고 성스러운 은사임을 가르쳤습니다.¹⁰

몰몬경을 번역하는 데 사용된 도구

선견자의 돌은 또한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 번역을 설명하는 역사 기록들에도 나옵니다. 1838년에 시작된 조셉 스미스의 공식 역사 기록에는 모로나이로 밝혀진 천사의 방문이 나오는데, 그 천사는 조셉에게 근처 언덕에 묻혀 있는 금판에 대해 말했습니다. 조셉은 천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뚜렷하게 “시현이 열려” 나중에 그곳으로 찾아갔을 때 “바로 그곳임을 알았[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42)

조셉이 1838년에 작성하기 시작한 역사에 따르면, 모로나이는 “(내 친가의 궁핍한 형편 때문에) 재물을 얻을 목적으로 그 판을 취하도록 사탄이 나를 유혹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천사가 이를 금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동기”[라도 있다면]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셉은 이야기합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46) 앞선 1832년 역사에서 조셉은 이같이 서술했습니다. “나는 … 부를 얻고자 판을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¹¹ 그

결과, 그는 판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4년 동안 해마다 산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53~54 참조)

조셉은 1827년에 마침내 모로나이로부터 판을 받을 때, 그것을 번역하는 데 사용할 돌도 두 개 받았습니다. 조셉 및 가까운 지인들은 이 돌들에 대해 설명하기를, 외견상 희거나 투명하며, 현대의 안경처럼 은으로 된 테에 고정되어 있고, 큰 가슴판에 연결되어 있다고 묘사했습니다.¹² 설명된 바와 같이, 선견자를 위한 이 도구는 커서 다루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모친은 그가 편의를 위해 돌들을 가슴판에서 떼어 내어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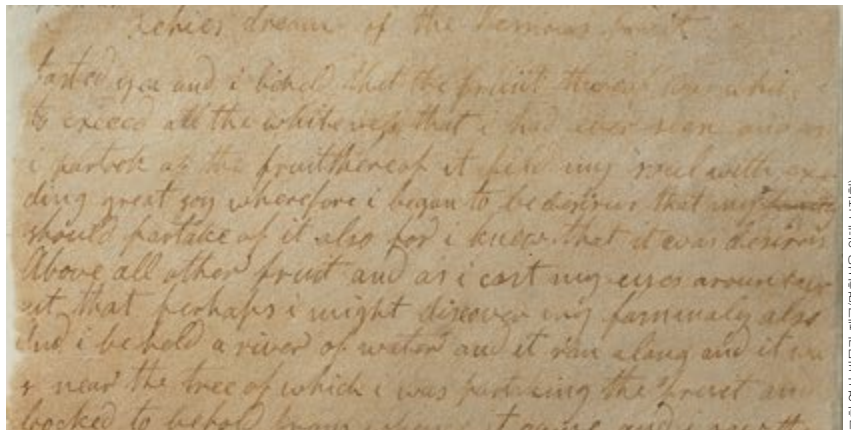
몰몬경에서는 이 돌들을 “해석기”라고 부르며 “언어를 해석할 목적으로, 태초로부터 예비되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으며 “주의 손으로 지켜지고 보존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모사이아서 28:14~15, 20)

몰몬경에는 또한 주님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미래 세대가 이 돌들의 도움으로 그의 말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약속과 함께 “두 돌”을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 일들을 기록하고 인봉하라”고 지시하시며 “내가 나의 정한 때에 사람의 자녀들에게 이를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돌들이 “네가 기록할 이 일들이 사람들의 눈에 크게 보이게 하리로다”(이더서 3:24, 27)라고 설명하셨습니다.

1829년 중반에 조셉 스미스가 서기들에게 몰몬경 번역을 받아쓰게 하는 일을 마쳤을 때, 선견자의 의미가 몰몬경의 본문에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몰몬경에는 애굽의 조셉이 그의 후손 중 하나(조셉 스미스임이 분명함)가 “뛰어난 선견자”가 되어 다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과 맺은 “성약에 대하여

알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니파이후서 3:6, 7)

몰몬경의 또 다른 부분에는 엘마 이세가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 해석기를 주는 것이 나옵니다.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영확장본 위에 보정됨)

엘마는 은 테에 고정된 두 돌을 가리켜 그에게 “이 해석기들을 보전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엘마는 또한 하나의 돌을 지칭하는 듯이 보이는 계시를 인용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종 게이젤렘에게, 어둠 속에서 빛으로 비출 돌 하나를 예비해 주[리라].”(엘마서 37:21, 23).

이 예언이 “해석기들”(복수)이라는 맥락에서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 예언은 미래의 종에게 “어둠 속에서 빛으로 비출 돌 하나”(단수)¹⁴를 주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초기의 후기 성도들은 이 예언된 종이 조셉 스미스였다고 믿었습니다.¹⁵

실제로,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을 번역하는 데 “해석기”로 알려진 두 선견자의 돌 외에도 적어도 또 하나의 다른 선견자의 돌을 사용했으며, 그 돌을 흔히 모자 안에 두어 빛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았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조셉의 동료들에 따르면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돌에

현재는 니파이전서 2장에 해당하는 리하이 가족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 몰몬경 원고의 상세 부분. 조셉 스미스는 이 부분을 받아쓰 올리버 카우드리를 비롯하여 여러 명의 서기에게 몰몬경을 받아쓰게 했다.



조셉 스미스에게 판을 건네 주는 모로나이 천사, 화가: 시 시 에이 크리스텐슨

교회가 설립된 후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교회 회원들은 조셉 스미스와 금판 발견 및 번역에 관한 초기 역사를 이해하고자 해 왔다. 1886년에 화가인 시 시 에이 크리스텐슨이 그린 이 그림은 조셉 스미스가 모로나이 천사로부터 금판을 받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나타나는 글자를 더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¹⁶

1833년 경에 조셉 스미스와 그의 동료들은 성경에 나오는 “우림과 둠뭉”을 니파이인 해석기들과 하나 밖에 없는 선견자의 돌 모두를 포함하여 신성한 계시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¹⁷ 이 부정확한 용어 때문에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한 정확한 방법을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마틴 해리스에 따르면, 조셉은 몰몬경 번역 중에 해석기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편의를 위해 선견자의 돌 중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출처들도 조셉이 번역 도구를 바꿔가며 사용했음을 입증합니다.¹⁸

몰몬경이 출판된 후

1830년 3월에 몰몬경을 출판한 후 조셉 스미스와 그의 서기들은 현재 조셉 스미스 역 성경으로 알려진, 흥정역 개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¹⁹ 조셉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이 번역에 니파이인 해석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셉 스미스 역사에는 이에 대해 이같이 설명합니다. “내가 이를 사용하여 내게 요구된 일을 끝낼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들은 내 손에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약속된 대로 사자가 이를 가지러 왔을 때 나는 그것들을 그에게 넘겨주었고, …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이를 간직하고 있다.”(조셉 스미스—역사 1:60)

브리검 영 회장(1801~1877)이 설명했듯이, “조셉은 번역을 마친 후에 우림과 둠뭉을 판과 함께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²⁰

조셉은 그 밖의 다른 계시자의 돌들을 갖고 있었는데,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자 후에 교회 역사가가 된 올슨 프랫 장로(1811~1881)의 말을 빌자면, 조셉은 또한 이 당시에 영적 이해력이 원숙해졌습니다. 1874년 6월 28일, 브리검 영 회장과 다른 많은 총관리 역원들이 참석한 어느 한 모임에서 프랫 장로는 청중에게 조셉 스미스가 “신약을 번역할” 때 “여러 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번역 과정에 어떠한 해석 도구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조셉이 왜 “몰몬경을 번역할 때처럼 우림과 둠뭉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의아해 했습니다.

프랫 장로가 선지자가 번역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에 “조셉은 마치 그의 생각을 읽은 듯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가 영감의 영에 미숙했을 때 그에게 우림과 둠뭉을 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영의 작용을 이해하기에 이를 정도로 진보했기 때문에 그 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²¹

브리검 영은 한 청중에게 선견자의 돌을 받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제가 이제껏 선견자의 돌을 갖고자 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²² 브리검의 이 말은 그가 이해하기로 선견자가 되는 데 선견자의 돌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1831년 10월 25일, 조셉 스미스는 오하이오 주 오렌지에서 열린 어느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대회 중에 그의 형 하이럼은 “몰몬경 출현에 대해 모두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장로들에게 조셉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임의 의사록에 따르면 조셉은 “몰몬경의 출현에 관해 자세한 모든 부분까지 세상에 말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으며” 그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²³ 선견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원숙해지고, 선견자의 돌이 계시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1866년경 사진. 교회 역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게재

피니어스 영이, 영 형제들 가운데 브리검 영 왼쪽에 앉아 있음. 물문경을 번역할 때 사용되었던 선견자의 돌을 올리버 카우드리에게서 입수하여 그것을 형제인 브리검 영에게 주었다.



사진: 벨 더 시 앤더슨과 리처드 이 톨러 아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사진에 나오는 돌을 조셉 스미스와 물문경의 번역에 연관지었다. 조셉 스미스가 물문경을 번역할 때 사용했던 돌은 흔히 초콜릿 색을 띠는 계란형의 돌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돌은 조셉 스미스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었고, 그 후 브리검 영과 그 밖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에 전해졌다.

선견자의 돌은 어떻게 되었는가?

조셉 스미스의 역사에 따르면, 그는 우림과 둠뮌, 혹은 니파이인 “해석기”를 천사에게 돌려주었다. 그런데 조셉이 물문경 번역에 사용했던 그 밖의 선견자의 돌 또는 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데이비드 휘트머는 “1830년 4월 6일 전, 이른 봄에 물문경 번역을 마친 후 조셉이 그 돌을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주고는 나를 비롯한 모두에게 다 사용했다고 말했고, 그는 그 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적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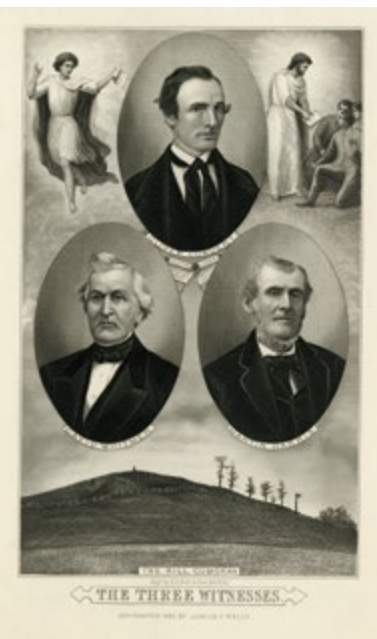
올리버는 십 년간 교회 밖에 있다가 1848년에 재침례를 받았고, 유타 주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려고 서부로 갈 계획을 했다. 그러나 그 여행을 하기도 전에 미주리 주 리치몬드에서 1850년에 죽었다.² 올리버 카우드리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도왔던 피니어스 영은 선견자의 돌을 데이비드 휘트머의 누이이자 올리버의 미망인인, 엘리자베스 앤 휘트머 카우드리에게서 받게 되었다. 피니어스는 그것을 자신의 형제인 브리검 영에게 주었다.³

“저는 올리버 카우드리에게서 받은 조셉의 첫 번째 선견자의 돌을 갖고 있습니다.” 1853년에 영 회장은 그 사실을 인정했다. 그 밖에 다른 선견자의 돌들도 있었다. 그는 “조셉이 세 개의 돌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에머가 갖고 있다”며 “두 개는 작고 하나는 컸다”고 덧붙였다.⁴ 2년이 지난 후에 브리검 영은 한 자리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올리버가 내게 조셉의 첫 번째 선견자의 돌을 보내 왔습니다. 올리버는 그걸 내게 보낼 때까지 줄곧 간직해 왔습니다.”⁵

브리검 영이 죽은 후, 그의 아내 가운데 한 명인, 후에 제3대 상호부조회 회장이기도 했던, 지나 디 에이치 영이 그의 영지에서 조셉이 물문경을 번역할 때 사용했던 돌과 외양이 똑같은, 초콜릿 색이 나는 선견자의 돌을 손에 넣었고, 그것을 교회에 기부했다.⁶ 그 이후로 역대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그 선견자의 돌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해 왔다.⁷

주

1. David Whitmer, *An Address to All Believers in Christ* (1887), 32.
2. 올리버 카우드리가 죽기 전에 교회로 돌아온 것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Scott F. Faulring, “The Return of Oliver Cowdery,” in John W. Welch and Larry E. Morris, eds., *Oliver Cowdery: Scribe, Elder, Witness* (2006), 321-62를 참조한다.
3. 의사록, 1855년 9월 30일, 교회 역사 도서관, 솔트레이크시티 참조: “David Whitmer,” *The Historical Record*, Oct. 1888, 623; Maria L. Cowdery Johnson to David Whitmer, Jan. 24 1887, Community of Christ Library-Archives, Independence, Missouri; and Franklin D. Richards, *Journal*, Mar. 9, 1882, Church History Library.
4. 회의록, 1853년 4월 17일, 교회 역사 도서관.
5. 회의록, 1855년 9월 30일, 교회 역사 도서관.
6. Zina Young to Franklin D. Richards, July 31, 1896, in *Journal Histor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July 31, 1896, 4, 교회 역사 도서관 참조.
7. B. H. Roberts, *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6:230-31; 조셉 윌링 스미스,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3권. (1954-1956), 3:225; Bruce R. McConkie, *Mormon Doctrine*, 2nd ed. (1966), 818-19 참조.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1883년에 교회에서 발행한 잡지인 *The Contributor*에 *물몬경의 세 증인이 집중 조명되고 있다. 후기 성도는 조셉 스미스가 물몬경을 번역하고 출판하도록 돕기 위해 각 사람이 했던 중요한 역할을 오랫동안 인정해 왔다.*

민게 되면서, 어쩌면 조셉은 사람들이 책이 어떻게 출현했는지에 초점을 둘 뿐, 책 그 자체에는 관심을 거의 두지 않을까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몬경 번역에 대해 조셉 스미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점은 그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물몬경을 번역했다는 것입니다.²⁴ 그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책 그 자체가 “지상에 있는 어떤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며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²⁵ ■

주

1. 교리와 성약 115편 참조.
2. 물몬경 서문, 1829년 8월경, in *Documents, Volume 1: July 1828-June 1831*, vol. 1 of the Document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2013), 93. 또한 “세 증인의 증언”, 물몬경 참조.
3. 출애굽기 4:1~5, 17, 20~21; 7:8~21; 8:16~19; 9:22~26; 10:12~15; 14:15~18; 17:1~13; 민수기 17:1~10; 20:7~11; 히브리서 9:4 참조.
4. 민수기 21:7~9; 요한복음 3:14~15 참조.
5. 출애굽기 28:12; 35:9, 27; 사무엘상 23:9~12; 30:7~8 참조.
6. 출애굽기 28:30; 레위기 8:8; 민수기 27:21; 신명기 33:8; 사무엘상 28:6; 에스라 2:63; 느헤미야 7:65 참조.
7. 19세기 종교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Journals, Volume 1: 1832-1839*, vol. 1 of the Journal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2008), xix; and *Revelations and Translations, Volume 3: Printer's Manuscript of the Book of Mormon*, vol. 3 of the Revelations and Translation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2015), xv-xvi; Dallin H. Oaks, “Recent Events Involving Church History and Forged Documents,” *Ensign*, Oct. 1987, 68-69.
8. Francis W. Kirkham, *A New Witness for Christ in America: The Book of Mormon*, vol. 2 (1959), 366에서 인용한 조셉 스미스 일화에 관한 진술 참조; see also Lucy Mack Smith, “Lucy Mack Smith, History, 1844-1845,” book 3, page 10, josephsmithpapers.org/paperSummarylucy-mack-smith-history-1844-1845 참조. 마틴 해리스는 조셉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건초 더미 속에서 핀을 찾게 했다고 회상했다.(“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July 1859, 164, 참조)
9. 예를 들어, 값진 진주에 나오는 조셉 스미스—역사를 참조한다.
10. 교리와 성약 130:10~11 참조. 또한 올리버 카우드리가 조셉 스미스의 물몬경 번역을 돕고자 갈망했을 때 그에게 지시된, 지금은 교리와 성약 8편이 된, 최초의 표현을

참조한다.(Revelation, Apr. 1829-B, in *Documents, Volume 1: July 1828-June 1831*, 44-47).

11. Joseph Smith, “History, ca. Summer 1832,” in *Histories, Volume 1: 1832-1844*, vol. 1 of the Historie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2012), 14.
12. 조셉 스미스—역사 1:35; Joseph Smith, “Church History,” in *Histories, Volume 1: 1832-1844*, 495; Martin Harris, in “Mormonism—No. II,” 165-6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1845,” book 5, pages 7-8, josephsmithpapers.org 참조.
13. 일레로, “Lucy Mack Smith, History, 1844-1845,” book 5, josephsmithpapers.org 참조.
14. 당연하게도, 이 구분은 해석자들이 갈피를 못잡게 했다. 일레로, Bruce R. McConkie, *Mormon Doctrine*, 2nd ed. (1966), 307-8; Joseph Fielding McConkie and Robert L. Millet, *Doctrinal Commentary on the Book of Mormon*, 4 vols. (1987-92), 3:278; and Matthew B. Brown, *All Things Restored: Confirming the Authenticity of LDS Beliefs* (2000), 62 참조.
15. See William W. Phelps, *Funeral Sermon of Joseph and Hyrum Smith*,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참조; Orson Pratt, “Explanation of Substituted Names in the Covenants,” *The Seer*, Mar. 1854, 229; William W. Phelps, letter to Brigham Young, Apr. 10, 1854, in Brigham Young, Office Files, 1832-1878,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및 *Revelations and Translations, Volume 2: Published Revelations*, vol. 2 of the Revelations and Translation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2011), 708-9 참조.
16. 번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lds.org/topics/book-of-mormon-translation에서 “물몬경 번역”을 참조한다. 또한 Russell M. Nelson, “A Treasured Testament,” *Ensign*, July 1993, 61-65; Neal A. Maxwell, “By the Gift and Power of God,” *Ensign*, Jan. 1997, 36-41 참조.
17. 일레로 윌포드 우드럽은 자신이 나무에서 본 선견자의 돌을 우림과 둠뿔이라 불렀다.(윌포드 우드럽 일지, 1841년 12월 27일, 교회 역사 도서관) 또한 *Revelations and Translations, Volume 3: Printer's Manuscript of the Book of Mormon*, xix, 참조.
18. *Revelations and Translations, Volume 3: Printer's Manuscript of the Book of Mormon*, xviii-xix, 참조.
19. 이 번역의 시작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원한다면, *Documents, Volume 1: July 1828-June 1831*, 150-52를 참조한다.
20. 회의록, 1853년 4월 17일, 교회 역사 도서관.
21. “Two Days' Meeting at Brigham City, June 27 and 28, 1874,” *Millennial Star*, Aug. 11, 1874, 498-99.
22. 회의록, 1855년 9월 30일, 교회 역사 도서관.
23. 회의록, 1931년 10월 25~26일, in *Documents, Volume 2: July 1831-January 1833*, vol. 2 of the Document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2013), 84.
24. Preface to Book of Mormon, ca. Aug. 1829, in *Documents, Volume 1: July 1828-June 1831*, 93. 또한 물몬경 “세 증인의 증언”, 참조.
25. 조셉 스미스, 윌포드 우드럽의 일지, 1841년 11월 28일, 교회 역사 도서관; 또는 물몬경 소개.

그림에 담은 번역 과정

수년 간 화가들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다양한 포즈와 배경 속의 번역 참가자를 보여 주는 몰문경 번역 그림을 그리고자 시도했다. 각 예술적 해석은 화가의 견해와 조사, 상상에 근거하며, 때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지시를 통해 도움을 받기도 한다. 다음 그림들은 수년 동안 창작된 작품들 중 일부이다.



몰문경을 번역하는 조셉 스미스, 올 피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몰문경 번역에 열중하는 모습을 담아 낸 화가의 그림. 여기에 묘사된 것과는 다르게 올리버 카우드리는 번역이 끝날 때까지 금판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을 지켜본 증인들은 번역 중에 금판은 리넨 천으로 감싸는 등의 방법으로 가려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판을 공부하는 조셉 스미스를 그린 그림. 조셉은 판에서 글자를 “상당량 필사”했다고 회상했다. 조셉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들 문자들을 번역한 후에, 마틴 해리스는 그 문자들을 가지고 번역이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찰스 앤튼을 비롯한 학자들에게 갔다.(조셉 스미스—역사 1:62~64)



후에 우림과 둠밈이라 불린 해석기, 혹은 안경이 달린 가슴판을 입고 번역하는 조셉 스미스를 그려낸 화가의 그림.



상화: 로버트 티 버렛



금판 번역, 올 존스,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조셉 스미스와 서기가 담요를 사이에 두고 번역하는 장면을 묘사한 화가의 그림. 번역 과정을 설명하는 대다수의 글에는 담요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초기에 서기가 판이나 안경, 또는 가슴판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기 위해 담요가 사용된 것이 분명했다. 번역 후반에는 호기심에서 번역을 지켜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부터 번역자와 서기를 가리기 위해 담요가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세상을 바꿀 글자

노먼 시 힐
가나 아크라 서 선교부 회장

가나의 한 지방부 평의회는 함께 상의하고 지역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개인적인 성장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기회를 갖게 해줄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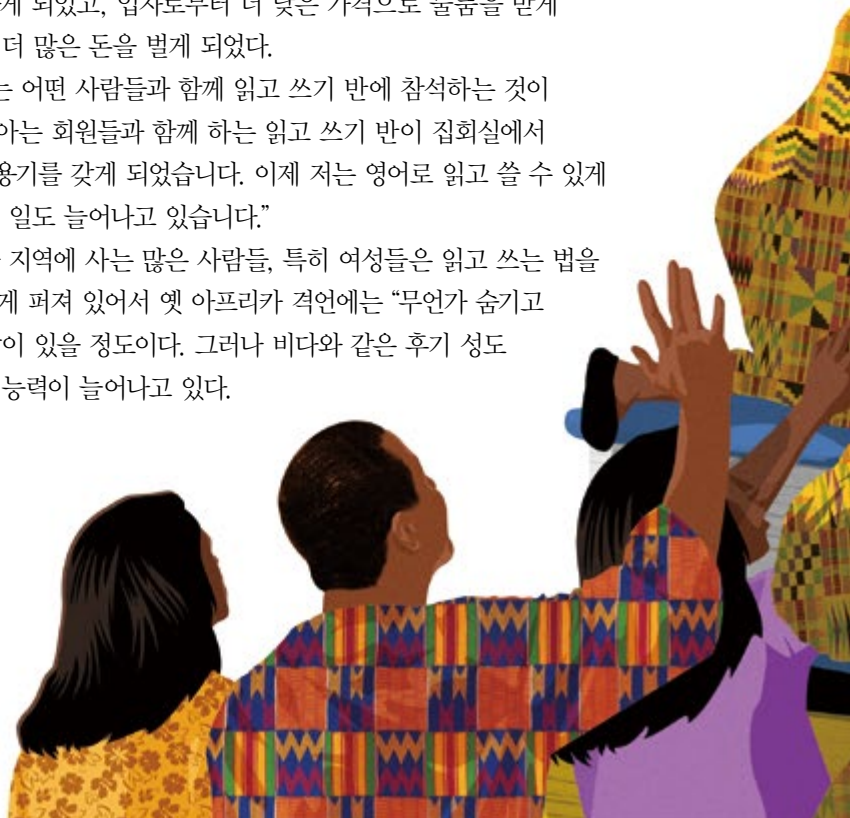
가나의 비다 오세이 자매는 영어로 읽고 쓰는 것을 배우고 싶어 했다. 수 차례 지역 사회 프로그램으로 시도해 보았지만 낙담하여 몇 주도 안 돼 그만두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제2지부 모임에 참석하고 있을 때 아사만케세 지방부에서 영어 읽기 및 쓰기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 기회를 이용하기로 하고 등록했다.

얼마 안 돼서 이 프로그램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교회 친구와 함께 다닐 수가 있었다. 경전이 학습 교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녀는 영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복음도 배웠다.

수업이 시작된 지 두 달이 되었을 때 비다는 난생처음 반에서 기도를 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성찬식에서 말씀을 했는데 일부는 지역 아프리카 언어인 트위(Twi)로 했고 일부는 영어로 말씀했다. 시작한 지 넉 달이 되었을 때 그녀는 낯은 공책에다 자신이 경영하는 재봉일에 대한 주문 내역, 비용 및 가격 등을 적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객에게 실수를 덜 하게 되었고, 업자로부터 더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받게 되었으며, 이전의 어떤 달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읽고 쓰기 반에 참석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회원들과 함께 하는 읽고 쓰기 반이 집회실에서 열리자, 다시 한번 해 보자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영어로 읽고 쓸 수 있게 되어, 경전을 읽을 수 있고, 제 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읽고 쓰는 법을 모른다. 문맹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옛 아프리카 격언에는 “무언가 숨기고 싶으면 책에다 적어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비다와 같은 후기 성도 여성들 사이에서는 읽고 쓰는 능력이 늘어나고 있다.







참여자, 가족 및 친구들이 지방부가 후원한 읽기 및 쓰기 프로그램의 졸업식을 축하하고 있다.

극복해야 할 어려움

대부분의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나라에서는 사회 기반 시설과 공공 교육이 제한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읽기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한받는데 특히 어린 소녀들은 더욱 그렇다. 높은 학교 교육 비용과 소녀들의 제한된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읽기란 얻을 수 없는 기술이라고 여긴다. 가나의 예를 들면, 영어가 공용어일지라도 성인 여성 중 영어를 말하는 사람은 어렵잡아 반도 안 된다. 가나 시골 지역에서는 성인 여성의 2/3가 문맹이다.

가나 아쿠라 서 선교부의 아보모스 지방부 회장인 세스 오폭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도시와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성인 여성들은 영어를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 지역 언어인 트위는 수 세기 동안 구술 언어였습니다. 최근에야 트위 알파벳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매들은 복음 원리와 교회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하는데, 결혼한 경우에는 대개 남편에게,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구가 구두로 전하는 것에 의존합니다.”라고 지방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조지나 아모야카 자매가 설명하고 있다. “봉사하고자 하는 큰 소망을 지닌 사람들이 많지만 교재나 잡지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한됩니다.”

평의회 의 조언

여성들이 가정이나 시장에서 영어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는 것은 그들에게 언어를 배우려는 주된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다. 하지만 오래된 회원이나 새로운 개종자 모두 읽기 및 쓰기 프로그램에 관해 가족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지방부 평의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토의했고, 오폭 회장은 각 지부에 있는 신권 및 보조조직 지도자들에게 범 지방부적으로 읽기 및 쓰기 훈련에 접근하는 것에 관해 말씀했다.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에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개방되어 있긴 하지만, 주로 교회에 있는 자매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에 대한 권유는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룹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면, 상호부조회와 초등회 회장단이 함께 참석해서 서로 도울 수 있다.

지부와 토론한 것을 근거로 지방부 지도자들은 읽고 쓰기 반을 각 지부에서 주 중에 두 번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일요일에도 갖기로 했다. 집중적인 6개월 교육을 마친 후에 정기적으로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숙제를 마친 사람들은 달성 증서를 수여받게 된다.

필요에 맞게 바꾼 자료들

지방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장년 선교사인 짐 돌턴 장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어려움 중의 하나는 구어만 있는 사람들에게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트위어가 문어가 아닌 구어로서 오래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트위어로 말하는 사람들은 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는 것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보모스 지방부 고등 평의회 의 랜스포드 다크와는 지역에 맞게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기 위해 두 귀환 선교사인 프란시스 안사와 세셀리아 아만크와와 작업했다. 참여자들에게 사진을 보여 주고 그들이 본 것에 대해 쓰게 했다. 이것은 그들이 영어로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동안 기본적인 쓰기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일단 어느 정도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면 좀 더 발전된 학습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

준비와 혁신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읽기 쓰기 전문가들이 학습 방법뿐 아니라 실용적인 위생 및 가족 생활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교사들을 훈련시켰다. 하지만 아무리 훈련을 잘 했다 하더라도 반을 시작한 후에야 맞닥뜨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예측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그 지역에서 자주 전기가 나가서 저녁반을 진행하기 어려웠고, 무법자 금광 광부들이 밤거리를 배회하고 다닌다는 소문으로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고, 가끔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제때 오지 않아서



영감받은 자립

“교회 복지 문제에도 일률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자립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립형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원에는 개인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 직계 가족과 방계 가족에게서 받는 지원, 지역 사회의 도움이 있으며, 여기에는 물론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에서 주는 따뜻한 보살핌도 포함됩니다. ...

결국 각 경륜의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한 것처럼 여러분의 지역에서 해야 합니다. 함께 협의하고, 모든 자원을 활용하며, 성신의 영감을 구하고, 주님께 확증을 구한 뒤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려 나서야 합니다.”

다이어트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주님의 방법으로 베푸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55쪽.

교회 건물을 열 수 없었다.

다시 한 번 지방부 평의회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 토의했다. 평의회는 조언에 따라 참여자 그룹은 함께 반에 오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인도를 따라 안전하게 걷는 데 도움이 되도록 손전등을 주었다. 지역 지도자들은 밤에 교회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발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교회 건물 근처에 살고 있던 신뢰할 만한 회원들에게 열쇠를 맡겨서 건물을 제때에 열 수 있도록 했다.

졸업식에서의 발표

61명의 회원들과 구도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43명이 모든 수업과 숙제를 끝마쳤다. 졸업식에서 그들은 짧은 발표를 하도록 요청받았다.

산쿠베나세 지부의 산드라 오벵 아모는 이렇게 말했다. “읽고 쓰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전혀 읽지를 못했습니다. 제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면 저는 가정의 밤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주 전 남편이 출장을 갔을 때 장남이 제가 교재를 읽는 것을 도와주었고 저는 영어로 자녀들에게 공과를 가르쳤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이 집에 없는 매주 그렇게 했습니다.”

영어를 조금밖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아보모스 제2 지부에서 충실한 교회 회원으로 남아 있는 프로스퍼 게케테는 자신이 써온 세 문장의 간증을 읽어 주었다. 그는 반에 참석하기 전에는 읽거나 쓸 수 없었지만 이제 자신의 어린 자녀들의 숙제를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배운 것으로 인해 더 나은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경전을 혼자 읽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콰벵 지부의 콰수 사수는 말했다.

“이전에 저는 몰몬경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몰몬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제 간증은 계속 커 가고 있습니다.”

아수나포 지부 상호부조회 회장단들은 매주 목요일은 서로 오직 영어로만 이야기하는 날로 정했다고 말했다. 상호부조회 회장인 에벌린 아그에이와는 이렇게 말했다. “그날 어떤 대화는 좀 길어지기도 했는데 이는 서로 이야기할 정확한 단어를 떠올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서로를 위해 통역해 주기 시작하면서 말할 정확한 단어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부끄러워하거나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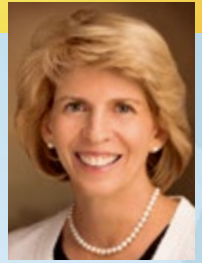
풍성한 혜택

아보모스 읽기 쓰기 프로그램을 마친 여성들은 자긍심을 갖게 되었고 교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 그들은 좀 더 기꺼이 부름을 받아들이고, 경전을 읽고, 교회와 가정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프로그램을 마친 남성들도 있었다. 대부분 생활 수단이 농부인 그들은 이제 비용과 제품 판매 금액을 더 잘 계산할 수 있고, 자녀들의 숙제를 도와줄 수 있으며, 경전을 혼자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읽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아보모스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이웃인 아사만케세 지방부도 읽기 및 쓰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산쿠베나세 지부의 글라디스 아세이두는 이렇게 말했다. “읽고 쓸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삶과 우리 자녀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말이 우리 세상을 바꾸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





캐럴 에프 맥콩키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대로 이끄는 법을

청소년에게 가르침

우리 청소년은 비단 미래의 지도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구주처럼 이끌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십 이사도 정원희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부모와 청소년 지도자에게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행동하도록 권유하십시오. 모임에는 함께 하되 비켜 서 있어야 합니다. 장악하지 않으면서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¹

부모와 지도자는 청남 청년가, 의로움으로 이끌고,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준비를 하게 하는 원리를 배우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14살 때 뛰어난 지도자인 몇몇 청년을 만났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미국을 가로질러 이사하여 새 와드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누가 장미반 회장단으로 봉사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청년들이 제게 유난히 친절했던 일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들은 겁에 질리고 뻐뻐 마른 새내기를 오래 전에 연락이 끊긴 친구처럼 맞아 주었고 제가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제가 살던 텔라웨어의 중학교에서는 저만 물론 소녀였고, 또 제가 아는 또 다른 물론 소녀는 우리 집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곳에 오니 “천국은 틀림없이 이런 곳일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난생처음으로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에 따라 생활하며, 활동에 참여하라고 권유하고, 저와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또래들이 생겼습니다. 당시 그들이 보인 사랑과 친절어린 모범은 다른 어떤 말씀이나 공과보다도 저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더욱 다가가게 했습니다. 그 사랑과 그리스도와 같은 빛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였고, 그들은 저를 그분의 우리 안으로 이끌고 인도했습니다.

새로운 제 친구들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한 젊은 선교사는 지도력을 다음과 같이 매우 단순하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때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도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² 이 교회 곳곳에 있는 충실한 청남 청년는 사람 됨됨이와 자기가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식으로 이끌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가 되도록 [도울]”³ 역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로서 청남 청년들을 이끌고 인도하며 곁에서 그들과 함께 걷습니다. 그렇지만 일요일 공과 선정과 주 중 활동 계획을 비롯하여 반 또는 정원회 일을 이끌고 인도할 책임은 반 또는 정원회 회장단에게 있습니다. 반 또는 정원회 회장단은 신권 열쇠를 지닌 사람의 지시 아래 부름받고 성별되므로 다른 청소년들을 이끌고 강화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주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르고 그분이 섬기듯이 섬기며 그분이 보살피듯이 보살핍니다.

청소년 지도자가 될 기회

지도력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와 지도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은 가정에서 한결같이 부지런히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굳게 결의하고 근면하게 생활해야 합니다.”⁴ 부모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청소년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도록 돕습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 책자는 청소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강화하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킬 준비를 하며, 가정과 집과 교회에서 자신의 성스러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회에서 아론 신권 및 청년 지도자들은 정원회나 반 회장단으로 봉사하는 청소년이 자신의 성스러운 책임을 이해하고 정원회나 반의 다른 모든 회원을 보살피고 강화하는 부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 지도자로서 청소년이 정원회나 반 모임 및 상호 향상 활동을 지휘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돌보고, 모든 청소년을 일요일 공과에 참여시키며, 활동, 봉사 프로젝트, 야영 및 청소년 대회를

계획하는 방안을 결정하는 회장단 모임에서 청소년들과 만납니다.

우리는 정원회나 반 회원 모두가 회원 선교 사업과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저활동 회원의 활동 촉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복음 교육을 포함하여 구원 사업의 모든 면에 참여하도록 도우라고 청소년 회장단을 독려합니다.⁵ 청소년 회장단은 모든 청년 청년이 구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그분의 양을 먹이는 데 따르는 기쁨과 축복을 알도록 도움을 줍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흠잡을 데 없는 유인물을 만들거나 사실로 가득 찬 강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청년 청년이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식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원리들을 배우고 적용하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이 네 가지 원리입니다.⁶

영적인 준비

청소년이 개인적인 영적 준비를 통해 얻는 힘을 알도록 돕습니다. 성찬식에서 맺는 성약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들이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을 기억하며, 계명을 지키면 항상 성신을 동반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성신의 속삭임을 듣고, 인식하며,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면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로 인도를 구하고 경전을 탐구하여 응답을 구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신이 그들의 가슴과 마음에 말씀하도록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고 느낄 것입니다. 아울러 반이나 정원회의 각 회원에 대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청소년은 자신이 주님의 대표자이자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품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64:29 참조)



적당한 양의 인도

청 소년은 이끄는 법을 배우는 동안 다양한 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어떤

청소년은 스스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청소년은 더 많은 인도가 필요할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이끄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동안 함께 상의할 수 있으며, 청남 및 청녀 회장단은 와드의 각 청소년에게 어느 정도의 지침을 줄지 결정할 때 서로 의논하고 감독단과 함께 상의할 수 있다. 목표: 각 청남 청녀가 현재 위치에서 시작하여 계속 발전하도록 돕는다.



가치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8:10~15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고 모든 사람이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청소년이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참된 종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로 모든 청남 청녀에게 손을 뻗어 사랑에 찬 친절로 보살핍니다. 구주께서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침

청남 청녀가 복음을 가르칠 기회를 인식하고, 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모범을 보이는 것임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청소년은 선지자들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고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을 지킬 때, 그것은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식으로 남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된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위선이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은 간증을 전하고, 일요일 공과를 돕거나 친구들과 복음 진리를 나눌 때, 영으로 충만하여 그들이 하는 말에는 개종으로 이끄는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식으로 끝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식으로 이끄는 것은 청소년이 가정, 교회,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하는 성스러운 특권입니다.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식으로 이끄는 청남 청녀는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가 되고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며, 궁핍한 자를 돕는 천사가 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됩니다. ■

평의회 참여

주님의 교회가 관리되고 개인과 가족이 축복받는,⁷ 성스럽게 제정된 이 절차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동안, 평의회는 기본 질서와 계시를 불러일으키는 힘에 관해 가르치십시오.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와 정원회 및 반 회장단 모임은 청소년이 자신의 의무를 배우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책임을 받는 평의회입니다.

평의회 구성원은

- 하나가 되어 신권 열쇠를 지닌 신권 지도자의 지시를 따릅니다.
- 의로움, 거룩함, 신앙, 유덕, 인내, 자애 및 형제 같은 친절함 마음으로 생각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할 일을 계획하기 위해 성신의 인도에 따라 함께 일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살핌

청소년이 사랑과 친절로 다른 사람을 보살필 때, 그것은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고 최고의 모습을 갖추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손을 잡고 자비로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최소한의 친절과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 그것은 제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⁸

구주께서는 모든 영혼이 소중하며 값을 매길 수 없는

주

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청소년과 가족 역사”, lds.org/youth/family-history/leaders.
2. 캐럴 에프 맥콩키의 손자가 보낸 편지, 2015년 3월 13일.
3.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3.1.
4. 로버트 디 헤일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부모와 지도자의 임무”, 리야호나, 2010년 5월호, 95쪽.
5. 지침서 제2권, 5 참조.
6. 지침서 제2권, 3.2 참조.
7. 지침서 제2권, 4.1 참조.
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394, 428쪽.





가정의 밤을 기념하며

19 15년에, 후기의 선지자들은 일주일 중 하룻밤을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따로 떼어 놓도록 권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을 “home evening(가정의 밤)”이라 불렀는데, 이 시간에는 가족이 함께 복음을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지상에서의 관계 및 영원한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가정의 밤은 백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영원토록 지속될 가족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지자들은 가정의 밤을 통해 더 큰 신앙과 영적인 힘이 우리의 마음에 자라날 것이며, 더 큰 보호와 단합과 평안이 우리 가정에 깃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상에서 한 가족에 속해 있으며,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족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가정의 밤을 기념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왼쪽: 모우아 가족이 최근에 태국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배우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가정의 밤 시간에 물문경을 모국어인 흐몽어와 현지어인 타이어로 공부합니다.

아래: 포르투갈의 산토스 가족은 돈독한 우애를 키우는 한 방법으로 가정의 밤에서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오른쪽: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가족이란 어머니와 아버지, 자녀들 이상을 의미합니다. 수에카메노 형제가 가족을 모아 가정의 밤을 할 때,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대 속에 함께 참여합니다.

맨 위: 필리핀의 게르칸 자매는 초등회 노래와 전통 음악을 사용하여 자녀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가르칩니다.

위: 앤더슨 가족은, 여기 사진에 나오듯이 미국 조지아에 있는 그들 집 부엌에서, 과자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과자를 공과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거나 간식거리로 내놓습니다







위: 미국 워싱턴의 레이놀즈 부부는 어린 자녀들이 배우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간단하게 가르칠 방법을 찾습니다.

오른쪽 맨 위: 볼리비아의 에스피노자 가족은 가정의 밤에 공경하는 할머니를 모셔 노래도 부르고 복음에 대해 배웁니다.


미국 조지아 주에 사는 진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가정의 밤 활동은 가족 역사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한국 유산을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리거트우드 가족은 이따금 가정의 밤의 일환으로 소풍을 나가 도시의 아름다운 곳을 즐겨 찾습니다.



가정의 밤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리아호나
각 호의 3쪽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A detailed landscape painting showing a dirt path winding through a lush forest. In the foreground, large, moss-covered tree trunks frame the path. The path leads into a bright, sunlit valley where a shepherd in a red cloak is herding a flock of white sheep. The background features rolling hills and mountains under a blue sky with soft, golden light, suggesting dawn or dusk.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구원의 계획

우리를 인도하는 지식이 담긴
성스러운 보물

전세에서 우리가 성공하게 된 열쇠는 바로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가 지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세에서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둡고 황량한 세상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이곳 지상에 왜
있는지, 또 필멸의 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한, 희망이 없는 상태에 대해 종종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들에 답이 되는 영원한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들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 만드신 위대한 계획에
있습니다. 경전에서 이 계획은 “구속의 계획”¹, “행복의 계획”², “구원의 계획”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길에서 멀어져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⁴ 오직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는 생활, 즉 “영생 ...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을]”⁵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의 은사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공부하고, 배우고, 적용하는 것은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온 인류는 부활하여 불멸이라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생활⁶을 얻기 위해서는 온 마음과 생각, 힘과 능력을 다해
구원의 계획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해함

이 계획을 알게 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계획은 인생의 영원한 목적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제껏 인류에게 주어진 지식 가운데 가장 큰 보화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구속의 계획을 알려 주신 후”⁷ 그들에게 계명을 주는 것이 그분의 일하시는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바램은 우리 각자가 구원의 계획을 더 잘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이 지식의 보화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선택의지

선택의지는 이 계획에서 필수적인 것이므로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진리에 따라 행하거나 또는 행하기를 거부하는 능력을⁸ 주셨는데, 이 진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늘이 하늘이 되게 만드는 진리입니다.⁹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생활하는 데 선택의지를 사용한다면 영원한 기쁨을 얻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그것에 불순종하는 데 선택의지를 사용한다면, 고난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¹⁰

선택의지는 전세, 현세, 내세 등 3막으로 이뤄진 구원의 계획을 위한 적절한 배경화면을 제공합니다.

전세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우리 각자는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¹¹ 전세에서 열린 회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구속의 계획을 설명하셨습니다.¹² 그 계획은 항상 존재해 왔던 교리와 율법,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¹³ 우리가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따른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 우리가 그분의 율법과 계명에 따라 살겠다고 선택할 것인지를 보여 주는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¹⁴ 우리는 이런 기회에 기뻐했으며¹⁵ 그 계획을 감사한 마음으로 지지했는데, 그 이유는 이 계획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고 또 영생을 상속받는 길을 제공받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필멸의 현세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선택하면 영생보다 못한 것을 받아야 했습니다.¹⁶우리가 필멸의 세상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과정에서 비틀거리고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셨기에 회개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속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적 및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구주를 마련해 주셨습니다.¹⁷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임한 아들이었습니다.¹⁸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지지했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¹⁹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임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서는 필멸의 세상에서 죄 없는 생애를 살고, 우리 죄와 고통을 위해 속죄하고, 사망의 줄을 끊기 위해 부활하실 이로 예수를 지명하셨습니다.

사탄으로 알려진 루시퍼도 전세에 살았습니다.²⁰ 이기적인 이유로 그는 그 계획을 거부했고, 사람의 선택의지를 멀하려 했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거슬러 모반을 했습니다.²¹ 그 결과로 사탄과 그를 따랐던 이들은 육체를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계획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신성한 운명을 잃었습니다.²² 오늘날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반의 싸움을 이어 가고 있으며, 인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등지게 하려고 애씁니다.²³

이 지구는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였던 이들을 위해 설계되고 창조되었습니다.²⁴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육체를 얻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험을 받고 증명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생을 상속받는 데 필요한 경험을 합니다.²⁵

현세

하나님께서서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편과 아내로 맺어 주셨으며,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며 자녀를 가지라 명하셨습니다.²⁶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선택의지를 행사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함께 떨어져 나와 필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²⁷ 이런 변화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했습니다.²⁸ 영원한 율법에 의해 거룩한 출산의 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영원한 기쁨을 누릴 기회가 생깁니다. 이런 성스러운 힘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밖에서 사용하면, 궁극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²⁹

만인이 “자기처럼 비참하게”³⁰ 되기를 바라는 사탄은 아버지의 계획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현세에서 우리의 성장과 시험을 위해 반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³¹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그분께 의지하게 되는 아주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선과 악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쪽을 받아들이고 다른 한쪽을 거부함으로써 마음속의 소망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³² 반대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도 있지만, 우리의 약점, 즉 필멸의 사람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자연적인 결점에도 존재합니다.³³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을 밝혀 주셨으며, 계명과³⁴ 그리스도의 빛³⁵, 성신의 동반하심³⁶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은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은 타락한 세상에서 죄를 범하기에 우리 자신만의 공덕만으로는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³⁷ 바로 이것이 그분의 자비로운 계획에 구주가 계신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지상에 오셨으며 모든 일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름으로써 정해진 사명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³⁸ 아버지의 자비로운 계획에 따라 구주의 부활이 타락의 영향을 극복했으며³⁹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선택의지를 행사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함께 떨어져 나와 필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했습니다.



영생의 핵심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영원한 결혼이 포함되며, 그것은 우리가 하늘 부모와 같이 되는 것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죄의 결과도 이겨 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충분히 이용한다면, 약점 또한 강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⁴⁰

우리는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영생에 대한 자격을 갖추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니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고, 구주의 모범을 따르는 일에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⁴¹ 피부에 와 닿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필수적인 모든 신권 의식을 받고 그와 관련된 성약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내세

우리는 죽은 후에 심판을 받기 위해 언젠가는 구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⁴²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해 회개에 이른 사람들은 용서를 받고 아버지께서 지니신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는 데 여기에는 영생도 포함됩니다.⁴³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영생의 은사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⁴⁴ 각 사람은 자신의 신앙과 회개, 생각과 소망과 행함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⁴⁵

일상 생활에서 구원의 계획을 적용함

우리가 일단 그 계획의 장엄한 전경을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되면, 아주 귀중하고 꼭 필요한 무언가를 얻게 되는 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관점입니다. 영원한 관점은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안정시킵니다. 설득력이 있지만 영원한 결함이 있는 의견들이 우리 주위에서 소용돌이칠 때도 우리는 확고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전세, 심판과 부활을 포함해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생 자체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은 3막으로 이뤄진 연극에서 제2막만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⁴⁶ 우리는 제1막(전세)을 이해해야만 제2막(현세)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제2막은 제3막(내세)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결정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해는 진지한 기도와 어우러져 우리가 인생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꿔 줍니다. 계획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트이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⁴⁷ 우림과 뚝뚝을 통해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계시와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⁴⁸ 계획에 대한 지식은 “도덕적 선택의지에 따라 미래에 관련된 교리와 원칙 안에서 행동하[는]”⁴⁹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 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은 강화되고, 또 영원한 진리에 맞춰 우리는 인생 여정의 항로를 정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대와 관련된 몇 가지 예가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의 결혼의 목적

사탄은 창조와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및 부활이 영생을 얻는 데 꼭 필요한 것처럼 결혼과 가족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계속 공략하고 있습니다.⁵⁰ 사탄은 구원의 계획을 떠받치는 여러 기둥 중 어느 것 하나라도 파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결혼과 가족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실천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고정된 좌표로 삼을 때, 결혼의 목적에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부모를 떠나 결혼을 통해 서로에게 연합하고⁵¹ 땅 위에서 번성하여 충만하라는⁵² 계명을 통해 그분의 계획이 가능해집니다. 결혼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영의 자녀들을 세상으로 데려와서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도울 때 우리는 그분의 협력자가 됩니다.⁵³

하나님의 계획은 영생, 즉 우리의 하늘 부모가 인도하는 생활을 상속받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계획에서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합니다.”⁵⁴ 영생의 핵심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영원한

결혼이 포함되며, 그것은 우리가 하늘 부모와 같이 되는 것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⁵⁵

남녀 사이의 결혼

남자와 여자는 각기 특유하고 본질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필멸의 세상을 함께 걸으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희생하고, 그분의 왕국을 함께 세우며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영원한 결혼이 하나님의 계명이며, 그분이 명하신 모든 것을 그분의 자녀들이 성취할 길을 그분이 마련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⁵⁶, 우리가 맺은 성약을 하나가 되어 지켜 나갈 때 우리의 결혼은 성공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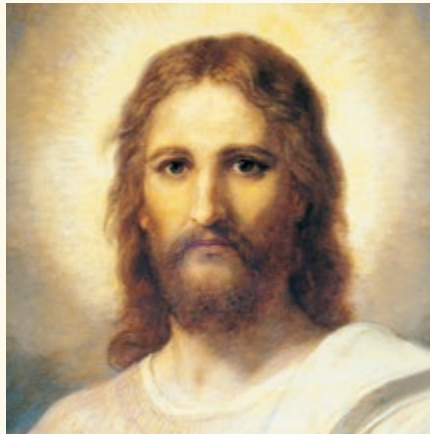
필멸의 세상에 있는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 신권의 의식과 그와 관련된 성약을 지키려 할 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받습니다.⁵⁷ 성전 의식은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줍니다.⁵⁸ 인봉 의식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성장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 줍니다.⁵⁹ 이런

종류의 결혼을 대신할 그 어떤 것도 우리 또는 우리 뒤에 오는 자녀 세대를 위한 그분의 성스러운 목적을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⁶⁰

이끌림과 소망

우리 각 사람은 인간 본연의 약점이나 한계를 갖고 이 타락한 세상에 옵니다.⁶¹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면, 그분의 계획과 맞지 않는 이끌림과 소망을 포함해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⁶² 우리가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서 전세에서 살았던 것을 알면 우리의 신성한 기원에서 개인적인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의 참된 근원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라는 우리의 신분입니다.⁶³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과 순종, 끝까지 견뎌를 통해



아버지의 자비로운 계획에 따라 구주의 부활이 타락의 영향을 극복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에 관한 지식을
매일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은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과 소망이 정화되고, 우리 몸이 정결해지고,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이 되어 그분의 속죄를 통해 완전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님께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⁶⁴

계획을 보는 영원한 관점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 닦아 주시니 ...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⁶⁵ 날이 충실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다줍니다. 이런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⁶⁶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충실하게 견디는 사람을 위한 약속

현재의 처지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영생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 갖고 계신 모든 것보다 덜 받을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⁶⁷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충실한 이들이 받지 못할 축복은 없습니다. 로렌조 스노우 회장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충실한 생활을 한 후기 성도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어떤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죽은 뒤에 잃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만일 젊은 남성이나 여성이 결혼할 기회는 없었지만 죽을 때까지 충실하게 살았다면, 이런 기회를 얻은 다른 남녀들이 결혼 관계를 통해 받는 모든 축복과 승영과 영광을 그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⁶⁸

이 계획을 알고 매일 적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

우리 각 사람은 전세에서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의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았으며, 영생을 포함해 그분이 지니신 모든 것을 상속받을 이런 기회를 주시려는 그분의 관대한 제의에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전세에서 우리가 성공하게 된 열쇠는 바로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가 지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세에서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의 계획을 다시 한 번 지지할 것을 여러분께 권유드립니다. 계획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인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의 계획에 관한 지식을 매일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은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신앙을 갖고 어려움과 마주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한 분명하고, 밝고, 눈부신 희망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

주

1. 야곱서 6:8; 앨머서 12:25~26, 30, 32; 17:16; 18:39; 29:2; 39:18; 42:11.
2. 앨머서 42:8, 16.
3. 에이름서 1:2; 앨머서 24:14; 42:5; 모세서 6:62.
4. 앨머서 12:32 참조; 또한 Boyd K. Packer, "The Great Plan of Happiness and Personal Revelation" (청년 성인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방송, 1993년 11월 7일) 참조.
5. 교리와 성약 14:7.
6. Harold B. Lee, *The Teachings of Harold B. Lee*, ed. Clyde J. Williams (1996), 72 참조; 또한 Bruce R. McConkie in Conference Report, April 1970, 26 참조.
7. 앨머서 12:32; 강조체 추가; 또한 25절 참조.
8. 니파이후서 2:13~16; 교리와 성약 101:78 참조.
9. George Q. Cannon, *Gospel Truth: Two Volumes in One: Discourses and Writings of President George Q. Cannon* sel. Jerreld L. Newquist (1974), 296 참조.
10. 리차드 지 스코트, "점점 증가하는 악 속에서 잘 사는 방법",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02쪽; Robert D. Hales, *Return: Four Phases of Our Mortal Journey Home*(2010), 33 참조.
1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또한 사도행전 17:29; 로마서 8:16~17; 히브리서 12:9; 아브라함서 3:18~25 참조.
12. 앨머서 12:30 참조; 또한 욥기 38:4~7; 아브라함서 3:22~28 참조.
13. 니파이후서 2:13 참조; 또한 하워드 더블유 헌터, "하나님을 알라", *성도의 빛*, 1975년 4월호, 43쪽;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허버 제이 그랜트* (2002), 29~30쪽 참조: "그 계명 하나하나가 우리를 하여금 ...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준비하게 해 줄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의무와 책임들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하여금 신이 되게 하고, 그렇게 되는 데 적합한 자격을 갖추게 하며, ...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14. 교리와 성약 136:31; 아브라함서 3:24~25 참조.
15. 욥기 38:7 참조.
16. 교리와 성약 88:34~36, 39~40 참조.
17. 이사야 53:3~5; 니파이후서 2:8; 9:10~11; 31:21; 모사이야서 3:17; 앨머서 7:11~13 참조.
18. 베드로전서 1:20; 모세서 4:2 참조.
19. 아브라함서 3:27.
20. 이사야 14:12~16 참조.
21. 모세서 4:3~4 참조; 또한 1:19 참조.
22. 요한계시록 12:7~9 참조.
23. 교리와 성약 10:26~27 참조.
24. 교리와 성약 59:18~19 참조.
25. 아브라함서 3:24~26 참조.
26. 창세기 1:26~28 참조.
27. 앨머서 42:2~6; 모세서 4:25, 28~31 참조.
28. 니파이후서 2:23; 모세서 5:11 참조; 또한 보이드 케이 패커, "행복의 계획", *리아호나*,

- 2015년 5월호, 26~28쪽 참조.
29. 앨머서 39:3~5; 41:3~4, 10~15 참조.
30. 니파이후서 2:27.
31. 니파이후서 2:11 참조.
32. 니파이후서 2:26~29; 앨머서 34:32~35 참조.
33. 야곱서 4:7; 이더서 12:27; 교리와 성약 62:1 참조.
34. 앨머서 12:30~32 참조.
35. 모로나이서 7:16~19; 교리와 성약 88:7, 11~13 참조.
36. 니파이후서 31:12~14, 18 참조.
37. 요한1서 1:8 참조.
38. 누가복음 22:39~42; 교리와 성약 19:16~19 참조.
39. 고린도전서 15:20~23; 니파이후서 9:10~13; 앨머서 11:42~45 참조.
40. 앨머서 42:2~15, 22~31; 모로나이서 10:32~33 참조.
41. 니파이후서 31:10~21; 제3니파이 27:13~22 참조.
42. 요한복음 5:22; 로마서 14:10; 요한계시록 20:12~13; 니파이후서 9:41; 앨머서 11:41~44; 제3니파이 27:14~17, 20, 22 참조.
43. 앨머서 34:14~17 참조.
44. 모사이야서 3:21~27; 힐라맨서 14:15~19; 교리와 성약 88:21~24, 29~32 참조.
45. 몰몬서 3:20~22 참조.
46. *The Neal A. Maxwell Quote Book*, ed. Cory H. Maxwell (1997), 252.
47. 토마스 에스 몬스, "모범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113쪽 참조.
48. 조셉 스미스-역사 1:35 참조.
49. 교리와 성약 101:78.
50.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52쪽 참조.
51. 마태복음 19:5 참조.
52. 창세기 9:1 참조.
53. 교리와 성약 93:36~40 참조.
54. 고린도전서 11:11.
55. 델린 에이치 옥스, "배도와 회복,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83쪽 참조; 또한 델린 에이치 옥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73쪽 참조.
56. 니파이전서 3:7 참조.
57. 교리와 성약 84:19~21 참조.
58. 교리와 성약 109:13~26, 38 참조.
59. 교리와 성약 132:1~21 참조.
60. 베드로전서 3:7; 교리와 성약 131:1~4 참조; 또한 Joseph Fielding Smith, *Answers to Gospel Questions*, 5 vols. (1957~66), 4:197 참조: "현세와 영원을 위해 성전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 나는 영생을 강조하고자 한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활이며 그분처럼 되는 것이다. 영생은 영원한 증식, 즉 계사가 말하듯이 후손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성전 밖에서 결혼하는 것은 오직 현세만을 위한 것이다. 죽음이 갈라놓는다. 즉 갈라놓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고 성전에 가서 상황을 바꿀 정도로 운이 좋지 않다면 영원히 갈라지는 것이다."
61. 이더서 12:27 참조.
62. 이더서 12:37 참조.
6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29쪽 참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소책자, 2007), 1 참조.
64. 이사야 40:31 참조.
65. 요한계시록 21:4; 또한 1~3절 참조.
66. 니파이후서 31:20.
67.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52쪽.
6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 (2012), 130쪽. 또한 고든 비 헵플리, "하나님의 딸", *성도의 빛*, 1992년 1월호, 117쪽.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인지에 관해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거룩하신 구속주의 계획 아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면 받았을 축복 중에 영원히 받지 못하게 될 축복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장교 식당으로 안내되어
들어가자 함장이
소리치며 한 젊은 장교를
나무라고 있었다.



이 일이 중요한들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내가 미 함선 웨스트버지니아호를 타고 해외를 순회하던 중, 포르투갈어를 하는 자로서 브라질 해군에서 3주 동안 교환 근무할 장교를 찾는 전화가 왔다. 나는 잠수함 부대에서 포르투갈어를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갈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나는 3개월간의 순회를 막 마치고 가족을 만나기를 고대하던 참이었다. 그런데도 그 교환 근무에 대한 생각은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어, 가야 한다는 강한 응답을 받고 그 임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준비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랐다.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이 일이 중요한들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성신은 계속 밀고 나가라고 속삭였다. 며칠 동안 지연된 끝에 마침내 브라질 전함에 도착했다. 장교 식당으로 안내되어 들어가자 함장이 소리치며 한 젊은 장교를 나무라고 있었다. 함장은 날 보더니 꾸지람을 멈추고 서투른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 “오, 미국 친구가 도착하셨구먼. 어서 오시게. 뭘 좀 마시겠나?” 나는 선교 사업 이래 맛보지 못했던, 브라질에서 인기 있는 청량음료를 달라고 포르투갈어로 대답했다. 함장은 배에 온갖 술이 다 있다고 했지만,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얼마 후 누군가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식당에 있던 젊은 장교가 서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장교님은 술을 마시지 않죠. 포르투갈어를 하시고요. 혹시 물론 아니세요?” 내가 “네, 그런데요.”라고 대답했더니 그는 두 팔로 나를 얼싸안더니 울음을 터트렸다. 이 장교, 멘데스 소위는 새로운 개종자이자 브라질 해군사관학교의 최근 졸업생이었다. 배를 타자 함장이 항구를 두루 다닐 때 장교들의 거친 생활방식을 따르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곧 알았기에, 멘데스 소위는 계속 “항구 내 근무”를 자원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기항지 활동에서 빠졌다. 함장은 갈수록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내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는 멘데스 소위가 함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소리를 지르고 있던 참이었다.

함장은 “자네는 다음 기항지에서 장교들과 함께 나가야 하네.”하고 명령한 적이 있었다. “자네는 방문하는 미군 장교에게 멋진 시간이 무엇인지를 보여 줘야 할 거야. 그 미군도 우리에게 그걸 기대할 테니 말이야.”

멘데스 소위는 선장이 자기의 소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해 달라고 여러 달 동안 기도해 왔다. 내가 도착하자 복음에 관한 토론은 식당 내 대화 대부분의 중심이 되었다. 우리는 다른 장교들과 조셉 스미스, 회복, 순결의 법과 지혜의 말씀에 관해 이야기했고, 곧이어 멘데스 소위에 대한 감정은 바뀌었다. 장교들은 드러내놓고 걸어 둔 외설물을 치웠으며, 우리는 다음 기항지에서 나이트클럽에 가는 대신에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다.

3주간의 합상 근무가 끝날 무렵, 합장 및 장교들과 우리 믿음에 관해 여러 차례 토론을 한 끝에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내가 떠나기 전, 함장은 멘데스 소위에게 “이제야 알겠네,” 라며 그의 원칙에 반하는 일을 더는 시키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나는 이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멘데스 소위와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일일이 알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염려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

켈리 랭, 미국 워싱턴 주

스패포드 자매님이 제게 말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늦은 밤, 온라인 음식점 게임을 한창 하고 있는데 남편이 옆을 지나가며 자리 간다고 말했다.

“나도 금방 갈게요.” 내가 말했다.

“진짜 와야 오는 거지.” 남편이 말했다.

나는 게임 속에 있는 가상의 음식점에서 가상의 손님을 위해 가상의 음식을 요리하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내가 말했다. “사실, 지금부터 15분 후에 나올 음식이 있어요.”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나는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을 집어들었다. 그 책은 상호부조회에서 받은 뒤로 쪽 책상에 놓여 있었다. 그 책의 서문을 읽기 시작했다. 셋째 페이지에서 제9대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던 벨 에스 스페포드 자매님의 이런 말씀을 발견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 대부분이 자신의 관심사를 인식하고 활동을 평가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고, 지속될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 있는 곳에 역점을 두며, 보상이 덜한 활동은 중단하여 삶을 단순화해 나가리라 믿습니다.”(2011, xiii)

경전 이외에 내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것처럼 깊은 영향을 준 적이

없었다. 돌아가신 지 30년도 넘는 분이 내게 말하고 있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그런 말을 했을 때보다 오늘날 더 절실한 것 같았다.

이제 온라인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번득 들었다. 컴퓨터를 끄고 잠자리에 들면서 내 결정에 대해 남편에게 말했다. 다음 날, 나는 컴퓨터를 켜지도 않았다. 그 대신에 나는 매일 그런 게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계산해 보았다.

일 년 365일에 하루에 세 시간씩을 곱한 다음 하루 24시간으로 나누었다. 일 년에 45.62일을 허비했다는 결과에 나는 그만 멍해졌다. 그 소중한 시간과 날들이 영원히 사라진 것이었다. 그 허비한 시간에 경전을 읽거나, 남편과 아이들과 보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거나, 내 부름을 더 잘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총관리 역원들이 연차 대회에서 이 주제에 대해 종종 말씀을 한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 절실히 와 닿았던 적이 없었고,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었다.

총관리 역원과 벨 에스 스페포드 자매님이 내게 말하고 있었다고 깨닫도록 성신이 도와준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 ■

샌디 하우스, 미국 오하이오

내가 왜 그곳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어머니와 나는 막 저녁 기도를 마쳤다. 우리는 서로 꼭 껴안으며 말했다. “사랑해요” 그러고는 내 침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방문을 열려고 손을 내미는데 어머니께서 내일 돌아가실 거란 느낌이 내 마음에 들었다.

나는 머리와 마음으로 애써 그 느낌을 뿌리치려고 했다. 어머니께 무슨 일이 일어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머니는 괜찮으실 거야.

나는 내 방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어머니에 대한 느낌이 사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분께 그 생각이 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간구했지만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나는 부모님 방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안고 입맞추고 싶다고 말했다.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나는 부모님 방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안고 입맞추고 싶다고 말했다.

그다음 날 일어났을 때 마음이 불안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건강하고 행복한 어머니의 모습을 뵈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뭔가가 잘못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 날 금식 및 간증 모임에서, 어머니는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간증을 전했다.

성찬식 모임이 끝난 후 어머니는 초등학교 반을 가르치러 가셨고 나는 주일학교 반에 갔다. 그때 또 다른 분명한 느낌이 왔다. 이번에는 일어나서 주일학교 반을 떠나라는 느낌이었다. 나는 주의를 끌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가 나를 일어나게 하여 문밖으로 나가게 했다. 몇 분이 지났을 때, 나는 초등학교 반에 앉아 어머니가 가르치는 것을 듣고 있었다. 내가 왜 그곳에 있는 건지 몰랐지만,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알았다.

그날 오후 오빠의 집에서 엄마는 마지막으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털썩 쓰러져 폐색전으로 돌아가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만이 알고 계신 이유와 자비로 내게 성신을 보내 준비시켜 주셨다. 나는 만일 그 고요하고 미세한 음성을 무시했다라면 누리지 못했을 어머니와의 시간을 그러한 속삭임에 따름으로써 좀 더 누릴 수 있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겪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토록 분명하게 느껴 본 적은 없었다. 특별한 성신의 은사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

엠버 체니, 미국 앨라배마



선박회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출항을 이틀만 늦춰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을 때, 그들은 출항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로투마로 가는 배편을 위한 기도

“웨스터랜드가 어제 떠났어요.”
처제가 피지의 나디 국제공항에서
우리에게 인사를 하며 이렇게 전했다.
나는 그 소식에 우울해지고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웨스터랜드는 로투마 섬에
계시는 형님을 보러 그 섬까지 우리를
태워다 줄 배였다. 로투마는 피지에서
제일 큰 섬인 비테레부에서 북서쪽으로
약 600킬로미터 떨어진 섬이다. 배를
놓치면 대부분 다음 배편까지 여러 날
또는 심하면 몇 주를 기다려야 했다.
일 년 전에 나는 형님이 할머니의 집을
수리하는 것을 도우러 로투마에 간 적이
있었고, 일자리와 관련해 의견 차이가
있어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지금은
형님 얼굴을 보고서 그때 일을 사과하고
싶었다.
아내 아카타와 내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피지로 떠나기
일주일 전에, 조카는 우리가 피지에
도착하기 전날에 웨스터랜드가 출항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나는 즉시

선박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출항을
이틀만 늦춰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로투마 섬 자치회가 환영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 배를
출항시켜야 합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 나는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로투마로 가는 그 배를 꼭 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출항을 늦출 수 없다고 하지만
당신께서는 그럴 권능을 갖고 계시나이다.
당신께서 배 어딘가에 있을 나사 하나를
제거해 출항을 지연시켜 제가 승선할
수 있게 해 주실 수는 없겠나이까?
저는 로투마에 가서 형님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실망스런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우리는
섬의 다른 편에 있는 항구로 움직였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그 배가 엔진에

문제가 생겨 출항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
에 응답하셨던 것이다! 나사 하나가 아니라
엔진 전체를 뜯어내 기름이 새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일주일 후에 드디어 출항하게 되었을
때, 나는 그 배에 타고 있었다. 로투마에
도착하고 나서 나는 형님을 껴안고
사과를 했고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정말 무척이나 기쁜 날이었다.
영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경험을 하게
해 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해 영원토록 감사할 것이다.
기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셔서 우리의
진지한 기도
에 응답하시며, 기도와
금식은 상승 작용을 하며, 복음은
로투마라는 작은 섬의 조그만 촌락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나의 간증이다. ■
존 케이 무어로,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
(글쓴이는 세상을 떠났다.)



랜들 엘 리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함

진정한 의도로 생활함

저는 어린 세미나 학생이었을 때 진정한 의도가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물문경 읽기에 도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 상황을 나타내려고 표를 만들어 한쪽에 우리 이름을 적고 위쪽에는 물문경 각 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각 권을 읽고 나면 이름 옆에 별표를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읽는 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뒤처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창피함과 제게 내재되어 있던 경쟁심이 살아나 물문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별표를 받을 때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별표가 늘어날수록 더욱 읽고 싶은 마음이 강해져 쉬는 시간에, 방과 후에, 틈이 날 때마다 읽었습니다.

제가 이런 노력을 기울인 결과, 반에서 일등으로 마쳤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이야기가 멋진 이야기였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등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인 물문경에 대한 간증을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 또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증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얻은 것은 별표였습니다. 제가 별표를 갖게 된 것은 바로 별표를 받기 위해 읽었기 때문입니다. 모로나이가 한 말을 빌리자면 그것이 제 “진정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물문경이 참된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모로나이사 10:4; 강조체 추가).

올바른 이유

뒤돌아보면 주님께서 제게 완전히 공정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얻으려 했던 것 외에 다른 무엇을 기대할

**진정한 의도란
옳은 일을
옳은 이유를 위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의도란 옳은 일을 옳은 이유를 위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옳은 책을 그릇된 이유를 위해 읽었던 것입니다.

제가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마침내 물문경을 읽은 것은 몇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읽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물문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명을 증거하는 신성한 목적을 성취한다는 것을 압니다.



사진 출처: 셔터스톡/나멘스/ISTOCK/THINKSTOCK

제가 몰몬경과 진정한 의도에 대해 배웠던 교훈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오랜 세월을 걸쳐 형성된 생활 양식이나 습관을 피동적으로 따르기만 합니다. 그런 행위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고 맙니다.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초점과 목적이 더해지고,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산다는 것은 우리 행동의 저변에 깔린 동기, 즉 “왜”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¹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생각해 보고 정기적으로 “왜?”를 자문해 보십시오. 이같이 할 때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커질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고 스스로 ‘왜 내가 그걸 하려는가?’라고 묻는 편이 과거를 돌아보며 ‘이런, 왜 내가 그걸 했지?’라고 묻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젊었을 때 선교 사업을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었습니다. 학교에서 일 년 그리고 군대에서 일 년을 보낸 후, 저는 지방의 어느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았고, 선교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의 외과 의사인 제임스 핀그리 박사가 점심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그는 제게 선교 사업을 할 마음이 없음을 알고 그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산다는 것은 우리 행동의 저변에 깔린 동기, 즉 “왜”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좀 많아 아마도 너무 늦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별로 좋은 이유는 아니라 말하며, 자신은 의과 대학을 마친 후에 선교 사업을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한 선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의 간증은 제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전에 결코 해 본 적이 없는, 진정한 의도를 담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나가지 않을 많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탔습니다. 게다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직장을 가졌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선교 사업을 갔다 오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군대에 있을 동안 기다려 준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2년을 더 기다려 주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이유가 정당하며 제가 옳다는 것을 확인

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실망스럽게도 저는 바랐던 간단한 예 또는 아니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께서는 제가 선교 사업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고, 이 순간이 제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자주 자문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선교 사업을 하기로 했고 멕시코 북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지명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결과

35년이 지난 후, 제 아들이 제게 함께 멕시코를 방문하자고 권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을 일부 찾을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선교 사업을 시작했던 작은

마을에서 성찬식에 참석했는데, 저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우리는 회원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가르쳤던 사람들의 명단을 나열하며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별 소득 없이 명단을 훑어가다가 마지막 이름인 레오노르 로페즈 데 엔리퀘즈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 맞아요.” “이 가족은 다른 와드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건물에서 예배를 봐요. 이 와드 성찬식은 다음이에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 레오노르가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70대 중반이었는데, 저는 그녀를 곧바로 알아보았고, 그녀도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부둥켜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복음을 가져다준 형제님에게 감사드릴 수 있도록 형제님이 돌아오시기를 35년간 기도해 왔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른 식구들도 건물에 들어왔고,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내 우리는 이 와드의 감독이 레오노르의 아들 중 한 명이며, 지휘자가 손녀이고, 반주자가 손자이며, 아론 신권을 지닌 여러 청년이 또한 손자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딸 한 명은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와 결혼했습니다. 또 다른 딸은 인근 와드의 감독과 결혼했습니다. 레오노르의 자녀들 대부분이 선교 사업을 갔다 왔고 이제는 손자 손녀들도 선교 사업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레오노르가 저보다 훨씬

나은 선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자녀들은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그녀가 쏟았던 지치지 않는 노력을 기억하며 감사해합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작은 결정들이 시간이 지나면 풍요롭고, 의롭고, 행복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쳤고, 그들은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모두 합해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훌륭한 한 가족 때문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점심을 함께 하며 나눴던 그 대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가끔 핀그리 박사가 자신의 성공이나 다른 세상적인 취미에 좀 더 집중했더라면, 그가 결코 내게 왜 선교 사업을 하지 않냐고 묻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사업을 진척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었고,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마가복음 4:20 참조) 저는 선교 사업을 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하나의 결정이 어떤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종종 제 삶을 뒤돌아보며 선교 사업을 나가겠다는 결정을 하기가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정을 하기가 힘들었던 것은 제가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에 대한 진정한 의도인 영원한 목적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제 소망과 뜻을 주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선교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은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제 소망과 뜻을 주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교회에 다니며 일요일에 성찬을 취했지만, 그 의미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했지만, 대개는 그저 하는 시늉만을 했던 것입니다. 경전을 읽지만 진정한 의도를 지니지 않고 띄엄띄엄 읽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과거에는 일관되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신중하고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했거나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깨끗이 닦아 내시도록 맡깁시다. 주님께서 하신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그들은 용서를 얻었느니라.”(모로나아서 6:8; 강조체 추가)

지금 시작하십시오. 하는 일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디로 이어질지 이해하며 의도적인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저변에 깔린 가장 중요한 “왜”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하심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을 추구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데서 큰 기쁨을 발견하기를 기원합니다. ■

청년 독신을 위한 전세계 영적 모임, “목적에 있는 삶: 진정한 의도의 중요성”에서 발췌, 2015년 1월 11일, 브리검 영 대학-아이다호에서 전한 말씀. 전문은 cesdevotionals.lds.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

1. 소크라테스의 변명(2001), 플라톤, 55쪽.

신앙, 봉사, 그리고 빵 한 덩어리

니상카(니쉬) 무뚜 무달리지

나는 2007년에 학교를 다니려고 스리랑카에서 아르메니아로 이주했는데, 그곳에서 선교사를 만나 이듬해 침례를 받았다. 침례받은 후 나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갈망했다. 나이가 25세를 넘었기에 그럴 수는 없었지만, 선교부 회장님은 나를 미니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르셨다. 내 책임에는 장로들과 일하며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나는 그 일을 좋아했다.

용기를 시험받음

당시 나는 쓸 돈이 빠듯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돈을 더는 보내 주실 수 없었기에 나에게는 며칠 먹을 식품을 살 돈밖에 없었다. 내가 다니던 대학교는 거처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으나, 선교 본부는 30분 동안 버스를 타고 가야 했고, 왕복 차비로 200드람(한화로 약 550원)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선교 사업을 더 많이 하고 싶었다. 한 장로가 자기와 몇몇 회원을 방문하자며

버스로 40분이 넘게 걸리는 중앙 지부 건물에서 만나자고 전화했을 때, 나는 빵 한 덩어리를 살 돈밖에 없었지만, 그러자고 대답했다. 나는 중앙 지부 건물까지 걸어서 갔다. 그날은 뜨거운 여름날이었기에 가는 도중 쉬면서 물을 마셔야 했다. 두 시간 이상 걸려 마침내 도착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두 시간 동안에 나는 남은 동전을 빵을 사는 데 썼다.

더 큰 시험

집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나는 같은 장로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니쉬, 다시 전화해서 미안한데 회원 한 분이 아프시대요. 와서 내가 그분에게 축복을 주는 동안 제 동반자가 되어 주실 수 있겠어요?” 불볕더위 속에서 네 시간을 걸은 터라 너무 피곤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내 마음이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나는 신앙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 가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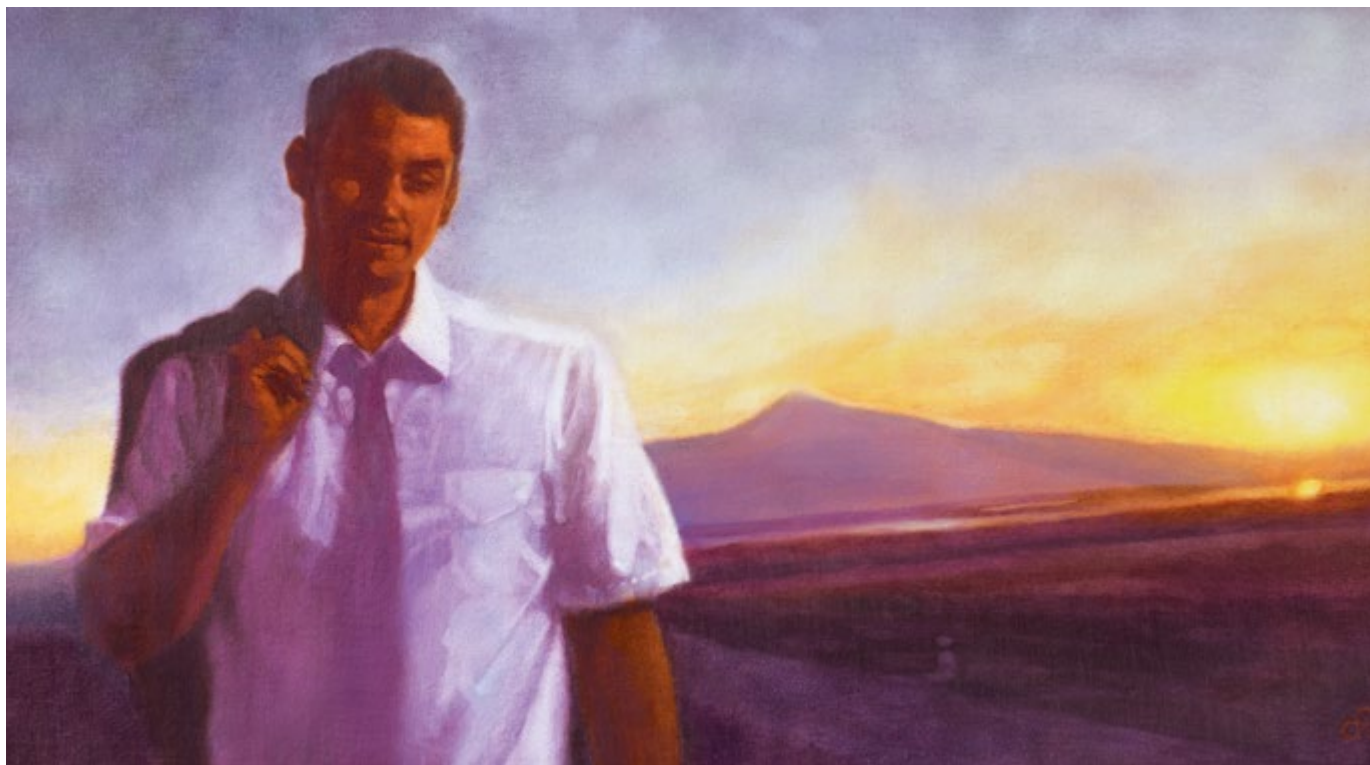
마침 룸메이트가 들어오길래 선교 본부까지 갈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고

집으로 가는 동안
나는 피곤하지 않았다.
생각나는 것은
그 연로한 자매님의
미소뿐이었다.

물었다. 그는 월말까지 먹을 식품을 살 돈밖에 없어서 빌려줄 돈이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갑자기 내 시선은 조금 전에 산 식탁 위 신선한 빵, 곧 내가 가진 유일한 음식에 멎었다. 나는 빵을 들어 “방금 이 빵을 샀는데 이 빵을 갖고 100드람을 주면 안 될까?” 하고 물었다. 그는 웃으면서 그러겠다고 했다. 나는 돈을 받아 버스를 타고 선교 본부로 갔다.

우리는 그 교회 회원, 곧 몸져누워



계시는 연로한 부인을 방문했다. 그분은 가까스로 눈을 뜰 정도였으나 나에게 미소를 보내셨다. 특히 나에게 말문을 열어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셨고 집에서 우리를 만난 것을 무척 기뻐하셨다. 장로와 나는 함께 그분에게 축복을 주었다. 자매님은 다시금 미소를 보내셨고 나는 그분 얼굴에서 빛을 볼 수 있었다. 그분의 따님은 어머니의 미소를 본 것은 여러 달 동안 우리의 방문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다시 두 시간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피곤하지가 않았다. 생각나는 것은 연로한 그 자매님의 미소와 우리가 나는 대화뿐이었다. 나는 그 자매님이 마지막 며칠 동안 큰 행복감을 얻는 데 아마 그 방문이 필요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그 자매님을 찾아가기를 바라셨다고 느꼈다. 나는 그 방문에 참여한 기회에 크게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그 부인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다. 아울러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용할 양식을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했다.

하늘로부터 온 축복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 내 친구는 그달에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나는 호주머니에 한 푼도 없었지만,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지는 않았다. 나는 날마다 걸어서 선교 본부로 갔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희생은 나를 행복하게 했다.

그달에 나는 여러 차례 점심 및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어느 날

나와 룸메이트는 모두 돈이 떨어져 아침 식사로 먹을 빵 한 덩어리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몹시 배가 고팠다. 우리는 한 친구에게서 돈을 빌리려고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두 아르메니아 원주민을 태운 차가 우리 앞에 섰다. 그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다. 스리랑카에서 왔다고 말하자 우리에게 집으로 와서 저녁을 먹자고 초대했다. 그들은 스리랑카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이든 듣길 좋아했고 우리는 훌륭한 저녁 식사를 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서 주시는 끊임없는 축복을 사랑한다. 그분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며 나는 날마다 사랑에 찬 그분의 보살핌을 느낀다. ■

글쓴이는 아르메니아에 산다.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외설물의 덧에서 벗어나기

우리 모두는 성적 내용이 담긴 미디어에
올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합니다.

10년 전에 저는 연차 대회에서 외설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드는 외설물의 효과에 대해 경고해 온 다른 지도자들의 음성에 제 음성을 보탬했습니다. 제가 “부적절한 성관계를 홍보하는 책자”라고 일컬은 것들로 인해 너무 많은 남성과 청소년들이 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외설물이든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민감성을 파괴하고, 신권 권능을 행사하는 능력을 약화시키며, 소중한 관계에 해를 끼칩니다.

이제 10년이 지난 후,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귀 기울인 많은 사람들이 외설물을 멀리하고 외설물의 오점으로부터 흠 없이 깨끗하게 자신을 유지하고 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선지자의 권유에 귀 기울여서 외설물에서 돌아서고, 상한 마음과 관계를 고치고, 제자가 되려는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는 계속 외설물을 탐닉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과 심지어 그 수가 늘어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음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외설물의 문제가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오늘날 세상에서 성적인 내용과 영향이 담긴 말이나 영상이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셜 미디어, 문자 메시지, 전화 앱, 광고, 책, 음악 그리고 매일의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정기적으로 성적인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몇 가지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힘을 얻고 수치심이
사라집니다.

빠져드는 정도

우리가 이 늘어나는 악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저는 외설물에 빠져드는 정도의 차이를 몇 단계로 구별하고, 단계별로 각각 대응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전 시대와 여건에서는 우리는 개인이 외설물에 처음 노출되는 것을 피하거나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는 데 주로 초점을 두고 외설물에 대해 조언해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지난 경험과 최근의 상황을 비추어 보면, 피하는 것과 중독이라는 극단적인 차이 사이에서 외설물을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 그에 맞게 조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외설물에 빠져드는 정도에 따라 네 가지 다른 단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심코 외설물에 노출됨, (2) 때때로 외설물 이용함, (3) 심하게 외설물을 이용함, (4)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외설물을 이용함(중독).

1. **무심코 외설물에 노출됨** 저는 모든 사람들이 무심코 외설물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돌아서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수와 같고 회개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정이 요구됩니다.²
2. **때때로 외설물을 이용함** 이러한 외설물 이용은 때때로 일어나거나 심지어 자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행위입니다.

외설물은 강력한 성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확대시킵니다. 창조주께서는 이러한 감정을 그분의 현명한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러한 감정 표현을 결혼한 남자나 여자에게 국한시키도록 계명도 주셨습니다. 외설물은 올바른 성적 표현을 저하시키고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성적 감정을 표출하도록 부추입니다. 외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창조하거나 멸할 수 있는 그토록 강력한 힘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이르지 마십시오!

외설물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것의 위험은 그것이 드물게, 또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항상 더 자주 외설물을 접하도록 이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성적 감정과 행동에 몰두하는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성적 이미지가 뇌에 화학 작용을 일으켜 성적 감정을 갖게 하며, 이것은 성적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³ 종류나 정도에 관계없이 부도덕한 성적 행동은 수치심을 낳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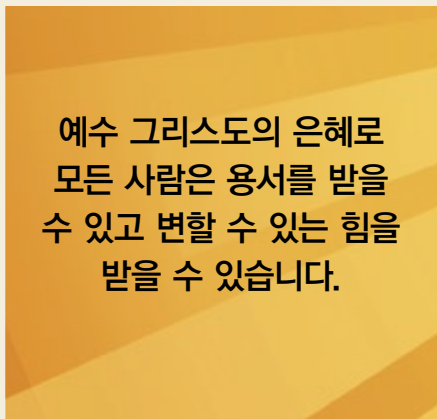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개인의 마음 속에 단단히 자리 잡게 될 수 있습니다.

3. **심하게 외설물을 이용함**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외설물을 이용하는 것은 습관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될 때까지 규칙적으로 따르는 행동 양식”입니다.⁴ 습관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는 같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 좀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4.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외설물을 이용함(중독)** 사람의 행동이 “자신의 삶에서 거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시 되며” “거부할 수 없는 충동”에 이를 정도로 “의존증”(마약, 알코올, 통제할 수 없는 도박 등에 쓰여지는 의학 용어)을 보이게 될 때, 그것은 중독인 것입니다.⁵

이러한 단계들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일단 우리가 이러한 서로 다른 단계를 깨닫게 되면 외설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자의적으로 외설물에 중독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외설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 청년들은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나 배우자 그리고 돕고자 하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구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이 빠져든 정도가 더 깊을수록, 즉 무심코 노출된 것에서부터 의도적으로, 때때로, 또는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심하게 이용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용(중독)하게 될수록, 회복하기가 더 힘듭니다. 만일 외설물에 빠져드는 행동을 중독으로 부정확하게 규정짓게 되면, 당사자는 문제를 극복할 능력과 선택 의지를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회복과 회개에 이르려는 결심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문제의 깊이에 대해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 즉 문제가 두려워할 만큼 심각하거나 뿌리 깊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면 희망을 갖고 중단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선택 의지를 행사할 능력을 키워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부도덕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외설물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성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를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즉시 회개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부끄럽게 느끼고 자신의 죄를 속임으로써 숨기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감정은 자기 비하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당사자는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 즉 그들이 행했던 일이나 계속하는 일로 인해 그들은 나쁜 사람이고 구주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을 믿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구주와 그분의 속죄로부터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설물을 심하게 또는 습관적으로 이용할지라도 중독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은 상황이나 필요한 회개와 회복의 온전한 본질을 정확히 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그 과정 중 어디에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할수록 회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외설물에서 벗어남

이제 외설물의 틈에서 벗어나 정신적 건강과 영적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 봅시다. 이것은 외설물의 이용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돕는 부모와 지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설물을 피하고 정신적 건강과 영적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이러한 진리에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생활하며, 앞으로의 유혹에 맞설 수 있도록 자신을 강화하고 정확해 주는 일들을 행하기로 재언약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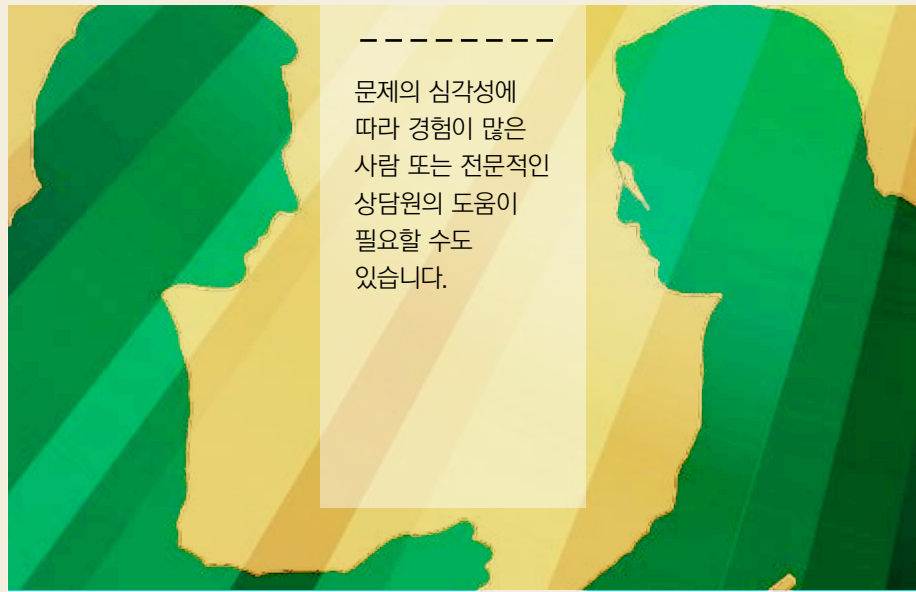
대해 부모와 지도자들과 상의할 때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⁶

얼마나 의도적으로 외설물에 빠져드느냐에 관계없이 회복과 순수함 그리고 회개에 이르는 길을 걸으려면 모두 같은 기본 원리가 요구되고 그것들을 따라야 하는데 여기에는 겸손, 제자 됨, 변하기 위한 개인적인 계획에 헌신하는 것, 책임감과 도움, 그리고 신앙으로 견뎌 등이 있습니다.

겸손

외설물과 그에 따른 행위를 진정으로 극복하려면 겸손함을 키워야 합니다.(이더서 12:27 참조)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몇 가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힘을 얻고 수치심이 사라집니다. 이 진리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모두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다.
-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알고 계신다.
- 구주의 속죄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적용된다.
-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힘을 받는다.
- 우리 모두는 선택의지라는 값진 은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속죄의 권능과 힘에 의지할 수 있게 해 준다.
- 외설물과 싸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사실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다.
- 외설물은 악이지만 외설물에 관여한다고 해서 사람이 악한 것은 아니다.
- 누구나 외설물의 덫에서 벗어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지만, 그것은 속죄의 권능에 의지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 외설물로부터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은 단지 외설물 이용을 멈추는 것 이상이 요구된다. 그러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경험이 많은 사람 또는 전문적인 상담원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영적으로 준비되어 이 진리에 따라 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회개와 회복을 하는데 필요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제자 됨

이러한 진리에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생활하며, 앞으로의 유혹에 맞설 수 있도록 자신을 강화하고 정화해 주는 일들을 행하기로 재언약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종교적 행위를 하겠다고 언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매일 의미 있는 기도와 경전 공부, 교회 모임 참석, 봉사, 금식 및 (감독이 승인했을 경우) 성찬을 취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계획에 헌신함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제자는 외설물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물리적 환경, 사회적 상황 그리고 깊은 감정을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계기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개인적인 탈출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계기나 열망이 생길 때 그것을 깨닫는다.
- 유혹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한다.
- 생각과 열정을 주님께로 다시 돌린다.
- 의롭게 생활하겠다는 개인적인 결심을 더 굳건하게 다질 수 있는 하루 하루의 구체적인 행동을 열거해본다.

개인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교회가 제공하는 훌륭한 자료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웹사이트인 OvercomingPornography.org에는 개인뿐 아니라 그들을 돕는 가족 및 신권 지도자들을 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중독 회복 프로그램은 중독적인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그들 가족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도움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추종자들은 주님께 의해 신권 지도자로 부름받았으며 그들이 회개하는 데 필요한 열쇠를 지닌 감독의 도움 또한 구할 것입니다. 관련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감독이 영감을 받았다고 느끼게 되면, 감독은 또한 누군가를 불러 그들과 함께 일하며 돕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의 다음 조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다해 주님께 간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노예로 삼은 중독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감독의 우정 어린 인도와,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⁷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약해지는 순간에 강해지도록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 또는 전문적인 상담원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당사자들이 자신의 계획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견뎌

회개를 했을 뿐 아니라 외설물을 이용하려는 욕정을 극복하는 축복받은 사람들은 계속 조심해야만 하는데, 대적이 여전히 그들의 인간적인 약점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설물을 피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무심코 외설물에 노출되는 일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성적 감정을 절제하고 깨끗하게 되려는 노력을 유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동정심

외설물의 탓에 걸린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합니다. 외설물과 싸우는 사람들이 필요한 원리와 회복의 단계를 따를 때 우리의 동정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악인이 아니며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 올바르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전 축복과 모든 성약에 합당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청남과 청녀는 주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하기를 권유받으며,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고 영원을 통해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배우자를 신중하게 택하도록 권유받습니다. 외설물로부터 온전히 회개한 사람은 이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결론

일생 동안 우리 모두는 성적 내용이 담긴 자료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는 (교리와 성약 20:77 참조) 성찬 성약이 주는 확신을 포함해서 사랑이 충만하신 구주의

인도로 우리는 항상 적절하게 외설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배하는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우리는 좀 더 충만한 구주의 평안을 받게 되며, 승영이라는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는 길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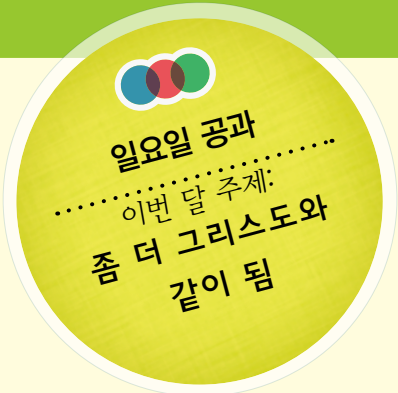
**우리 모두는 선택의지라는
값진 은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속죄의
권능과 힘에 의지할
수 있게 해준다.**

주

1. 델린 에이치 옥스, “외설물”,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88쪽.
2. Dallin H. Oaks, “Sins and Mistakes,” *Ensign*, Oct. 1996, 62-67 참조.
3. Donald L. Hilton Jr., M.D., “Pornography Addiction—a Supranormal Stimulus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Neuroplasticity,” *Socioaffective Neuroscience and Psychology*, vol. 3 (2013), socioaffectiveneuroscipsychol.net/index.php/snp/article/view/20767; 또한 “Porn Changes the Brain,” fightthenewdrug.org 참조.
4. *Webster’s Encyclopedic Unabridged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989), “habit.”
5.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Complete Home Medical Guide* (1999), 564.
6. 또한 젊은 사람들과 부모는 인간의 생식 작용에 대해 솔직하지만 적절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인간의 성행위에 대해 부모가 아니라 친구들로부터 듣는 청소년들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외설물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
7. 고든 비 힝클리, “우리 안에 있는 끔찍한 악”,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62쪽.

사진: 신화 INGRAM / PUBLISHING/STOCK/THINKSTOCK

올바른 때에 올바른 장소에서



자 신이 필요로 했던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했거나 말해 주었다고 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 여러분은 영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는 지시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을 위한 천사로 보내기 위해 여러분을 언제 필요로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도움을 줄만큼 늘 합당해야 하며, 또 기꺼이 도우려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다음은 바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이다.

주차 티켓

파티마 로차 구티에레스

나는 몇몇 교회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관에

갔을 때 주차를 위한 티켓을 받았다. 영화를 본 후 우리는 주차 티켓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 우리는 그냥 주차비를 지불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중엔 주차비 180페소를 갖고 있는 친구가 아무도 없었다.

주차비를 안 내고 차를 영화관에 두게 되면 결국 견인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그 비용이 더 비싸게 들 것이다. 친구들은 절망감에 젖었으며, 특히 차를 몰고 온 친구는 더욱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 차는 아버지 소유였기 때문이다. 나는 조금 물려서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 온 신앙과 겸손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일어났던 일은 내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차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바로 다름 아닌 고등학교 친구였던 프란치스코였다. 그는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물었고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그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지갑을 꺼내 잃어버린 주차 티켓 대신 주차비를 지불할 수 있는 돈을 주었다. 이러한 친절한 행위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었다.

프란치스코는 결코 그가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나는 살아가는 내내 그에게 깊이 고마워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놀라울 때도 있지만 우연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며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가 의롭게 생활한다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셀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 축복에는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다음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들리움을 받으리라.”(엘마서 37:37) ■
글쓴이는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에 산다.

딱 맞춰 온 전화

첸 칭 추안

나는 자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내 삶은 혼란 투성이였으며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는 너무 암울한 나머지 생을 마감하고 싶었다. 선교사들이 와서 내 방문을 두드린 때가 바로 그때였다. 복음은 그야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나는 자석에 끌리듯 그 가르침에 끌렸다.

교회에 가입한 후에도 내 시련은

끝나지 않았지만, 사탄의 영향력에 맞서는 데는 더 나은 위치에 있었다. 나는 행복이 어떤 느낌인지를 처음으로 알았다.

그렇지만 우울증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어느 때인가는 다시금 포기하고 싶어졌다. 바로 그때 감독님의 부인 텅 자매님께서 전화가 왔다. 자매님은 나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보셨다. 나는 모든 것을 그분께 털어놓았다. 나에게 그 자매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다.

그 일로 나는 힘을 얻고 신앙이 강해졌으며, 죽음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엘마서 36:2~3 말씀처럼 견져졌다고 느꼈다.

“이는 그들이 속박 가운데 있었고 ...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들을 견져 낼 수 없었음이라. ...

...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시련과 그 곤경과 그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얻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들리움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게는 여전히 시련이 있지만, 다시는 쉽게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 모든 시련과 근심 가운데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영적 감옥과 속박, 심지어 죽음에서도 나를 구해 주셨다. 그분은 내 구주이시다. ■
글쓴이는 대만 타이베이에 산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러나 보통 다른 사람들 통해 우리의 필요사항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왕국에서 서로 봉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스펜서 더블유 킴볼(1895~1985) 회장,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킴볼 (2006), 82쪽.

여러분의 생명의 책

여러분은 생명의 책을 무엇으로 채우려 합니까?

매일 새로 써야 할 페이지가 열립니다. “내가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을” 보다는

“내가 그렇게 해서 참 다행이야”로 모든 페이지를 채우는 삶을 사십시오.

(엘 톰 페리, “생명의 책을 채우는 방법” 리아호나, 2014년 2월호, 61쪽 참조)



창세기 1:26~27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형상

“자신보다 더 높은 권세를 인식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들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 신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지식은 우리에게 내적인 평안과 큰 화평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주님의 등대”, 성도의 빛, 1991년 1월호, 112쪽.

하자

이 표현은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태초에 하나님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들의 평의회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세상을 창조하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6:308) 이 평의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이들이 참석했다.(모세서 2:26~27; 아브라함서 4:26~27 참조)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분이셨지만 지금은 승영하시어 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위대한 비밀입니다. 지금 휘장이 걷힌다면, ... 여러분이 오늘 그분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형상을 가진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처럼 보이며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0쪽.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고, 신성한 속성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상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린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는 것처럼, 하늘 부모의 아직 성장하지 않은 자녀들도 측량할 수 없는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처럼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The First Presidency, “The Origin of Man,” Improvement Era, Nov. 1909, 81; Ensign, Feb. 2002, 30.

다스리게

“우리는 인류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지구와 그 위의 모든 것을 책임감을 갖고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이 지구와 그 혜택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인이며 하나님의 창조물을 갖고 자신이 한 것에 대해 그분 앞에 책임져야 할 것이다.”

“Environmental Stewardship and Conservation,” mormonnewsroom.org; 또한 교리와 성약 104:13~15 참조.

남자와 여자

“모든 남자와 여자는 우주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았으며,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The First Presidency, “The Origin of Man,” Improvement Era, Nov. 1909, 78; Ensign, Feb. 2002, 29.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편집자 주: 이 기사는 선정된 세미나리 성구 익히기 구절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 학습을 시작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진리 찾아서

나는 하나님과 같은 것은 없다고 늘 배워 왔지만 스스로 알아보기로 작정했다.

펑 후아

경 쟁심이 강하고 종교적 영향이 덜한 아시아 국가에서 성장한 나는 늘 성공한 사람이 되려는 욕심이 컸지만, 나를 인도하는 영원한 원리나 진리는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 “성공”은 부와 권력을 지닌다는 뜻이었다.

부모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것은 없다고 늘 내게 가르치셨다. 그분들께 종교나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이며 오직 나약한 사람들에게나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나는 내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내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른 나이부터 나는 큰 포부를 둥기 삼아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다.

부모님은 내게 아주 큰 기대를 갖고 계셨다. 두 분은 내가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를 바라셨다. 성적이 시원치 않을 때 두 분의 실망한 얼굴 표정을 보거나 두 분이 서로 언쟁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서글펐다. 나는 모든 과목에서 수를 받기 위해 정규 수업 이외에 주말에도 별도의 과제를 해야만 했다.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내 인생에서 무언가가 더 있다는 느낌이 남아 있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분명 무언가가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로 있는지 스스로 알아봐야겠다고 작정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혹은 종교가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당치 않은 것인지를 알고 싶었다. 나는 이 두 대답 중 어느 하나를 받더라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 즈음에 나는 테일러라는 우리 농구 팀원 하나와 친한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그에게 학교까지 태워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좋다고 했지만, 평소보다 한 시간 일찍

일어나 함께 세미나리에 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세미나리가 뭔지도 모르고 마지못해 그러겠노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배웠던 것보다는 느꼈던 것 때문에 세미나리가 더 즐거웠다.

그 뒤 얼마 후, 테일러는 내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다. 처음에 나는 교회가 조금은 지루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예배에서 느꼈던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 때문에 마음이 움직였다.

하지만 나는 그 좋은 느낌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 느낌이 내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확신하지? 내 스스로 그렇게 느끼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확신하지?

마음 속으로 많이 고민한 끝에 나는 대답을 찾으러 테일러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분은 내가 경전을 읽고 찾으려 하는 대답에 대해 기도하면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 주셨다. 나는 어떤 대답도 받지 못한 채 기도했고, 내가 배우고 있던 규칙과 계명을 따르느라 고생이 많았다. 나는 여러 차례 좌절도 했다. 나는 하나님이 놀랍고도 극적으로 나타나거나 기적 비슷한 것이 일어나 하나님이 실재한다는 것이 증명되기를 기대했다. 한마디로 말해 나는 흔들리지 않는 간증을 한꺼번에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기도할수록 내 삶에서 더 분명함을 느꼈다. 내가 계명을 더 따를수록, 나는 더 행복해졌다. 경전을 더 읽을수록 더 많은 계시를 받았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점차 내 간증은 커졌다.

내가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데 이 년이 걸렸다. 물론 나는 그 이전에도 좋은 도덕적 표준과 원리에 따라 생활했지만, 이제 나는



우리는 믿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간증, 신앙은 수동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 희망하고 수고하고 희생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기도하거나 십일조를 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연히 구주와 그분의 복음을 믿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것을 선택하듯이 믿음 또한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엘 워트니 클레이튼 장로, 칠십인 회장단, “믿겠다고 결정하십시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38쪽.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진리를 찾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시다. 하늘은 열려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늘도 지상에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실재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든 죄인을 정말로 용서하신다.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총명하거나 다재 다능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내가 가진 이 지식은 아주 귀중하다. ■

글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다.





경전에 나오는 놀라운 청남 청년

여러분은 경전에 나오는
여러 의로운 청소년의 모범을 배우고 따를 수 있습니다.

기젤라 거디에

주님은 교회의 청소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품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느 시대이든, 용기 있는 청남 청년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주님께는 청소년의 창의력, 용기, 기발함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그래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어린 영웅들이 보인 여러 모범은 마치 황금 실처럼 경전 곳곳에서 빛납니다. 이들이 비록 오래 전에 살았기는 하나, 여러분은 이들의 모범을 따르고 이들의 삶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던 이들도 있었고, 불의한 사람 가운데 살기도 했으며, “골리앗”과 맞닥트리기도 했지만, 이들은 용기와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질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결의와 용기에 차서, 사악함에 맞서 혼쾌히 목소리를 높인 일은 놀랍기만 합니다. 부친이 우상을 숭배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소년 시절, 그는 의를 위해 강경하게 일어섰기에 제물로 바쳐질 뻔했습니다.(아브라함서 1:2~7 참조)

애굽의 요셉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 요셉은 17세에 불과했지만, 주님의 축복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훌륭한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에 패배하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자행된 부당한 행위를 용서하여 내면의 위대함을 고귀한 방식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창세기 37장, 45장 참조)

다윗

다윗은 십 대 시절 양치기였으며, 부친의 양 떼를 보호하려고 곰과 사자에 맞서 싸웠습니다. 다윗의 자신감은 양치기로서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타났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사무엘상 17:32~54 참조)

에스더

에스더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겠다는 결심에서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미모가 아닌, 영적 성품이었습니다.(에스더 4~5장 참조)

다니엘

다니엘은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건강에 관한 주님의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의로웠고 영으로부터 오는 영감에 마음이 열려 있었기에 꿈과 시현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님께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위험한 시기에 하늘의 권능을 불러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힘과 지혜를 얻었습니다.(다니엘 1장, 6장 참조)

니파이

니파이는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습니다.”(니파이전서 3:7)라고 말할 때, 믿을 수 없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하도록 요청받은 일을 할 용기를 지녔습니다. 니파이가 안락한 가정에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일이 잘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형들은 종종 니파이에게 화를 냈으며 때로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시련을 거치면서도 그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이천 명의 암몬인

이 젊은이들은 신앙심이 깊은 부모에게서 자랐으며 어머니의 말에 대한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듣고 철저히 순종하기를 배웠으며, 싸움터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앨마서 56:45~48 참조)

몰몬

몰몬이 15세일 때, 주님이 그를 방문하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간악했음에도 몰몬은 겸손하고 청결하며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몰몬은 15세 때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경전을 기록하라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몰몬서 1~2장 참조)

조셉 스미스

조셉 스미스는 14세 때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할지 알기 위해 경전을 탐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회복하도록 그를 부르셨습니다. 조셉은 술한 장애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온 생애를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바쳤습니다. 조셉은 17세 때 천사 모로나이의 방문을 받았으며, 그는 조셉에게 금판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젊은 나이에도 힘 있는 교사였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였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 참조)

여러분의 날

놀라운 청년 청년들이 나오는 시대는 지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천사 모로나이는 조셉 스미스에게 요엘의 예언이 곧 성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주님]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요엘 2:28~29; 조셉 스미스—역사 1:41 참조) ■

글쓴이는 세미나리 교사였으며, 독일에서 살다가 2009년에 세상을 떠났다.

“편찮으신 엄마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결국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일에서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 금은 인생에서 슬픈 시기일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많은 질문에 답과 확신을 얻길 바라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을까?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위안과 답을 가져다줍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제3니파이 12:4) 성신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도 됩니다.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이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다음 말씀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네 기도와 네 형제들의 기도가 내 귀에 상달되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90:1)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관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사야 55:8~9 참조) 축복을 간구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진지하게 간구하셨던 구주의 모범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누가복음 22:42 참조)

비록 힘들겠지만 이러한 시련은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머니가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은 어머니가 살 수 있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필멸의 삶에서 주어진 시험은 항상, 특히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90:24).

죽음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 따르면 우리가 그분의 면전에서 돌아가는 것은 죽음과 부활의 기초 위에 이루어지는데, 이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필멸의 상태에서 불멸의 상태로 변하게 해 줄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죽음이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언젠가 돌아가신 어머니와 다시 한 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영의 세계에 계시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데이비드 엠, 18세, 웨스턴 카사이, 콩고 공화국

어머님은 영의 세계에 계십니다.

저의 어머니는 2년 전에 암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보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기를 바랐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회복은 하셨지만, 힘든 경험이었습시다. 당신의 어머니는 아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 곳에 계십니다.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당신은 결코 혼자 아닙니다. 어머님이 항상 당신을 사랑하실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침울할 때마다 들어 올려 주시기 위해 항상 곁에 계실 것입니다. 결코 내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느끼고 어떤 것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시련의 시기에 제가 한 것처럼 해 보세요.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이 당신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실로 더블유, 18세, 멕시코 치와와

당신의 가족은 재결합할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겨우 1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저는 어머니가 나오시도록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겐 큰 신앙이 있었고,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슬프게도 어머니는 회복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왜 그토록 젊은 나이에 십대인 저를 두고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저는 교회의 회원이 되었고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가족은 재결합하게 될 것을 저는 압니다.

이나에 엘, 19세, 미나스 제라이스, 브라질

시련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제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 의지한다면 그분들과의 관계가 커 갈 것입니다. 이 시련으로 인해 망연자실하게 될지라도 그 또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평안과 위로를 얻도록 기도하십시오. 당신을 위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곳에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기쁨기를 원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메간 비, 18세, 온타리오 캐나다

당신은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제 외할머니는 어머니가 17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몇 주 동안 우리 가족은 외할머니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신권 축복도 받으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평안을 찾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다음 생에서 외할머니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사는 것이 어머니의 목표입니다. 이 생애에서 외할머니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슬프지만 우리가 마침내 만나게 될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캐리 알, 15세, 미국 유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병 고침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니를 믿어 병 고침을 받으리라는 신앙이 있고 죽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자는 병 고침을 받으리라.’(교리와 성약 42:48; 강조체 추가). 우리 모두는 너무 자주 ‘죽기로 정해지지 아니한 자’라는 조건이 달린 문구를 못 보고 지나칩니다. ... 간절한 기도와 신권 축복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사랑야는 이가 좋아지지 않거나 심지어 죽게 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위안을 삼으십시오. ... 모든 기도, 금식 그리고 신앙의 경험은 ... 우리에게 더 유익을 줍니다.”

랜스 비 워크맨 장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철십인의 일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31쪽.

다음 질문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 제 표준을 공유하지 않는 친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의견과 고화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5년 11월 15일까지 liahona.lds.org로 제출하거나 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또는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3쪽의 주소 참조)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보내실 때, 다음 사항과 동의서도 같이 보내셔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은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함).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는 결정

이번이야말로 이기는 팀에서 뺄 기회인데 미란다는 어떻게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머리사 위드슨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모사이야서 13:16).

미란다는 집안이 바깥의 뜨거운 여름 날씨보다 시원한 것에 감사하며 급히 현관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이번 시즌 마지막 축구 경기에서 땀에 젖은 채 돌아왔으며, 자기 팀 털터보스가 패배한 탓에 풀이 죽어 있었다. 또 지고 만 것이다.

엄마가 물병과 시합에서 먹다 남은 오렌지 조각이 든 봉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셨다. “넌 아주 잘했어. 골키퍼란 어려운 자리지.”

미란다는 공을 술하게 막고 보통 때보다 더 세게 공을 차는 등 경기를 잘했다. 하지만 팀의 대다수 다른 아이들은 전에 축구 경기를 한 적이 없었기에, 오늘 그 실력이 드러났다. 팀은 이번 시즌 경기를 모두 졌다.

“난 한 번이라도 이기는 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란다는 눈가에서 눈물이 몇 방울 흘러나와 청록색 셔츠에 떨어졌다. 눈을 감았을 때 전화가 울렸다.

엄마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잠시 후에 “네 전화다.”라고 말씀하셨다.

“안녕, 미란다? 난 칠리 키퍼스의 코치인 톰이야. 오늘 네가 하는 게임을 보았지. 꽤 잘하더구나.”

미란다는 가슴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다. 칠리 키퍼스라면 리그에서 최고인 축구 팀이 아닌가!

“우리 팀은 다음달에 지역 챔피언 결정전에 나갈 거야. 네가 오늘 무척 잘하길래 후보 골키퍼로 우리랑 함께 가자고 전화했어.”

미란다는 가슴이 거의 터질 것 같았다. 이번이야말로 이기는 팀에서 경기할 기회가 아닌가!

“저도 가고 싶어요!” 미란다가 말했다. 두 사람은 미란다가 전화를 끊고 엄마에게 알리려 다른 방으로 달려 가기 전까지 몇 분간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했다. 엄마는 미란다와 함께 가족 달력에 연습날과 경기하는 날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갑자기 달력의 한 칸 위에서 펜으로 기록하기를 멈추었다.

“저런! 미란다, 이 경기들은 일요일에 한단다. 여기 좀 보려무나.” 엄마는 경기 일정을 가리키며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미란단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기쁨의 날

경전은 우리에게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이사야 58:13 참조)
여러분은 일요일에 어떤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가?
멋지고 독창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면 좋을까?”

미란다는 가슴이 무거워졌고, 입술을 깨물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했다. 부탁하면 엄마는 아마 들어 주실 거야. 하지만 일요일에 운동한다는 생각, 특히 교회를 빠진다는 생각을 하자 미란다는 속이 울렁거리며 불편해졌다. 미란다는 일요일이 교회에 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축구 경기를 하면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는 없었다.

“그 코치님께 전화해서 시합에 나갈 수 없다고 알려야겠어요.”라고 미란다는 말했다. 미란다는 울음을 참으려 애썼다.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임을 알기는 했으나 간절히 바랐던 무언가를 포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니?” 엄마는 미란단을 부둥켜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난 네가 대단한 아이라고 생각해.”

그 주 일요일, 미란다는 초등학교 교실에 앉아 자기가 내린 올바른 결정을 돌이켜보았다. 코치는 미란다가 전화로 일요일에는 축구 경기를 할 수 없다고 말하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미란단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미란단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초등학교 노래와 공과를 들으며 미란단의 얼굴에는 이제 미소가 번졌다. 미란단의 가슴에 감도는 평화로운 느낌은 미란다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무엇보다도 미란단은 이기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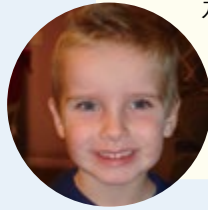
질문 코너

교회 회원이라서 좋은 점은?



저는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빵과 물을 드는 것이 좋아요. 빵은 우리에게 그분의 몸을, 그리고 물은 그분의 피를 생각나게 해 주지요. 우리는 성찬을 들 때, 눈을 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죠.

에이바 제이, 9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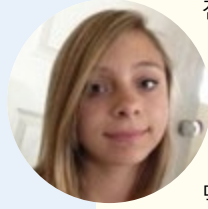
저는 초등학교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요.
헤이든 에이치, 5세, 미국 유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또 초등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아요.
캐서린 더블유, 7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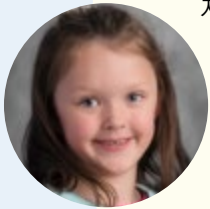


저는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 배우는 것이 좋아요.(르네)
친구를 사귀고, 날마다 경전을 읽고 복음을 배울 수 있죠.(랄프)
르네와 랄프 이, 11세 및 10세,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친구를 많이 사귄 수 있고 회원이 아닌 친구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서 좋아요. 연차 대회 때는 선지자와 사도님들 말씀을 듣게 되죠. 가정의 밤도 정말 재미나요. 가끔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거든요. 맛이 기가 막히죠!

서베너 에이치, 12세, 미국 워싱턴 주



저는 성신을 느낄 때가 좋아요. 저는 말씀이나 공과를 듣는 동안 성신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성신을 느끼죠.

케이일리 시, 7세, 미국 버지니아 주



같은 시간에 배우고 놀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죠. 예수님은 제 구주시니까 저는 그분에 대해 배우기를 좋아해요.(리즈)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아요.(랄로)
리즈와 랄로 에스, 8세 및 6세, 미국 캘리포니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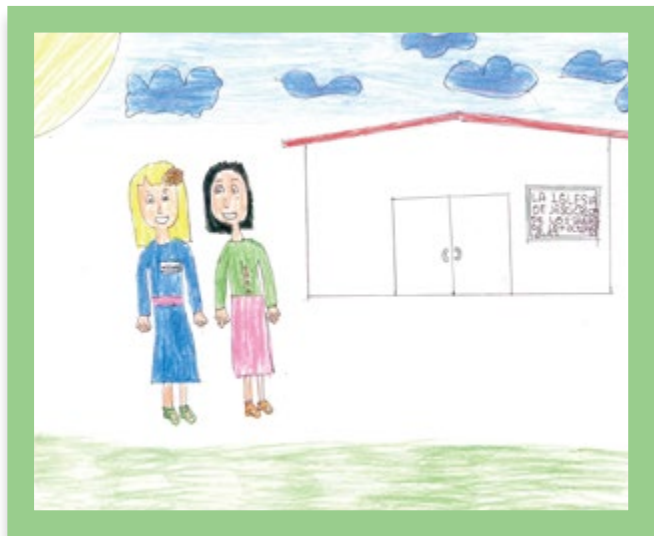
다음 질문

“엄마 아빠가 말다툼하면, 몹시 걱정되고 슬퍼요. 저는 어떡해야 하죠?”

여러분은 여기에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과 사진을 2015년 10월 31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3쪽에 나오는 우리 주소로 보내거나 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십시오.(제목란에는 “Question Corner”라고 쓰십시오.) 부모님의 승낙서를 포함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시된 의견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이야기



자매 선교사들, 아브릴 에스, 9세, 멕시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감사해요.
 밤낮으로 빛을 비춰 주어요.
 하나님이 나무를 주셔서 감사해요.
 거센 바람을 잠잠게 해 주지요.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마음 깊이 알고 있지요.
 제 삶이 썩 멎지 않을지라도
 제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해요.

니샤사 제이, 10세, 팔라우 공화국



아르헨티나에서 같은 와드에 다니는 네 명의 소년들이 같은 날 함께 침례를 받았다. 감독(가운데)이 그들과 함께 서있다.



우리 오빠와 우리 가족의 한 친구가 선교사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여덟 시간을 차를 몰고 독일 프라이베르크에 있는 성전에 갔고 그곳에서 오빠와 친구는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5일을 그곳에서 머물렀고 우리 가족은 성전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성전 부지에는 가족들이 머물 호스텔이 있어요. 저는 몇몇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정원사를 도와주었고 정원사 아저씨는 우리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어요. 우리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내년엔 12세가 되어 성전에서 침례 의식을 받을 수 있을 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알리카 에스엣, 11세, 슬로바키아

베드로, 고넬료, 그리고 천사



에린 샌더슨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돌아가신 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유대 사람들에게만 전파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의 장교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다.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베드로를 맞이하라고 말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찾도록 사자를 보냈고, 성신은 베드로에게 그와 함께 가라고 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는 그곳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말했으며, 그들은 성신을 느꼈고, 그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다. 베드로의 친구들은 베드로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알고는 놀랐다. 하지만 베드로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사도행전 10:1~48; 11:1~18 참조) ■



나눌 준비를 한다!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 한 가지 방법은 좀 더 예수님과 같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명찰을 오려서 여러분이 연습하길 원하는 성품을 적어 넣는다. 여러분은 “친절한 장로” 또는 “감사하는 자매”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목표를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곳에 명찰을 둔다.



장로

자매

자매

장로

가족과 대화하기

마태복음 28장 19~20절을 읽는다. 복음을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친구나 이웃들이 복음에 대해 물어볼 만한 질문들을 생각해 본다. 가족들과 역할극을 함으로써 질문을 하고 답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노래: “우리들은 니파이처럼”(어린이 노래책, 92)과 같은 선교 사업에 관한 노래를 선택한다.

경전: 마태복음 28:19~20

비디오: Biblevideos.org로 가서 “Peter’s Revelation to Take the Gospel to the Gentiles”을 시청한다.

경전 공부 도움말

우리가 배우는 것을 나눌 때 경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경전 구절을 가족과 함께 읽고 어려운 단어나 구절의 뜻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구절이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것과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더 알아보기

베드로는 제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시몬으로 알려진 어부였다. 예수님이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그 이름은 “돌” 또는 “바위”라는 의미이다. 예수께서 지상을 떠나신 후에 베드로는 선임 사도로서 교회를 이끌었다. 그는 신권의 열쇠, 즉 권세를 지니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으나
테이트는 이야기할 시간이
바로 지금임을 알았다.

도움을 찾음

김벌리 리드

실화에 근거

“하늘 아버지, 지금 기도드려요.
날마다 저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세요.” (“Heavenly Father, Now I
Pray, guide and guard me ev’ry day”,
Children’s Songbook, 19쪽)

테이트는 울음을 참으려 애쓰며, 깡
채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기도로
도움을 간구했지만, 마치 먹구름이
뒤덮고 있어서 영이 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듯싶었다.

“그 끔찍한 텔레비전 쇼가 계속
잇혀지지 않으면 어찌지?” 하고
걱정했다.

며칠 전 테이트는 숙제를 일찍 마치고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화면에서 그런
것을 보리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다.
테이트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곧바로 텔레비전을 꺼야 한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다.
그런 장면을 볼 뜻이 없었지만,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어떤 때는 그 장면이
학교 수업 중이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뇌리에 떠올랐고, 심지어 교회에 있는
동안에도 떠오르는 때가 있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면, 테이트는 엄마
아빠가 자기 마음을 읽지 못한다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테이트의 부모님은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 사진은 아예 쳐다보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테이트는 부모님이
폭력적인 텔레비전 쇼, 영화, 비디오
게임도 피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 까닭을 알겠어.” 테이트는
혼자 중얼거렸다.

테이트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무릎을 꿇었다. 테이트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아버지,” 테이트는
속삭였다. “제가 본 것이 생각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테이트는 눈가에 남은
눈물을 훔치며 귀를 기울였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성신이 자기에게
속삭인다는 걸 느꼈지만, 그것은 바라던
응답이 아니었다.

그는 부모님께 알려야 했다.

“왜 그래야 하지?” 테이트는 궁금했다.
자신이 한밤중에 부모님 방으로 가는
아기처럼 느껴졌다. 부모님께 알려야

하다니? 다시금 창피스럽고 멀미가 날 것
같았다.

그러다 어떤 뚜렷한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다. 하나님 아버지는 테이트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가 영을 다시 느끼고 좋은
것을 생각하며 가족에게 솔직하기를
바라셨다. 특히 테이트가 몇 달 후 열두
살이 될 때 합당한 아론 신권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셨다. 테이트는 자기 본
것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비밀로 하면,
그 일로 계속 행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테이트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성신은 방금 그 도움을
어디에서 얻을지 알려 준 것이다.

테이트가 침대맡에 놓인 디지털
시계의 반짝이는 숫자를 바라보았다.
거의 밤 한 시였다. 테이트는 일어나
어두운 복도를 따라 부모님 방으로
향했다. 초조하게 침을 삼키며 방문을
두드렸다.

“엄마? 아빠?”

“테이트니?” 졸린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지?”
아빠가 물으셨다.

“네.” 테이트가 대답했다. “얘기 좀
해도 돼요? 그리고 축복을 주시면 안
될까요?”

아빠는 침대 등을 켜더니 테이트에게
들어오라고 하셨다. 테이트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따스함과 희망, 그리고 빛을
느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오, 이런! 이제 어떻게 하지?

가정이나 학교 또는 친구 집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은 갑자기 좋지 않다고 알고 있는 것을 전화기, 텔레비전, 컴퓨터 또는 게임기 또는 책이나 잡지에서 보게 된다. 이제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곳에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좋은 것을 보거나 읽는다. 활동적인 일을 한다. 좋은 일을 행한다. 가족 또는 친구들과 어울린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한다. 여러분이 본 것 때문에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되도록 돕길 원하신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난다. 꺼 버린다. 내려놓는다. 그것을 여러분의 두뇌에 독이 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께 말씀드린다. 부모님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며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돕길 원하신다.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에게 있었던 일은 언젠가 거의 모든 사람에게도 일어나게 된다.



계속 이야기한다. 여러분이 그날에 보았던 어떤 것으로 마음이 편치 않을 때마다 어머니나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부모님은 여러분이 부적절한 것들을 보는 것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러분이 외설물의 덫에 빠졌다고 느끼거나, 걱정이 되거나, 부적절한 것을 다시 보기 원하는 것같이 느껴진다면 그것 역시 부모님께 꼭 말씀드려야 한다.

그냥 지나가게 놔둔다. 여러분 자신이 풍선을 날려서 그것이 멀리 떠가는 것을 지켜본다고 상상한다.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여러분이 본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날려 보낸다. 이제 성전과 가족 또는 여러분이 보길 원하는 것을 그려 본다.



폴의 호박

레이 골드럽
실화에 근거



폴은 아빠를 도와 정원을 가꾸고 있었어요. 폴은 에릭 형도 함께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형은 선교 사업을 하느라 멀리 있었어요.

“저는 절대 에릭 형처럼 크지 못할 거예요.” 폴이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형처럼 선교 사업을 나갈 수 있나요?”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말씀했어요. “너도 클 거야.”

심화 에이미 무머



아빠는 폴에게 호박 씨앗을 조금 주셨어요.
 아빠는 폴이 씨를 심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이 작은 씨앗이 자라면 커다란 호박이
 될까요?” 폴이 여쭙보았어요.
 “네가 잘 돌봐 주면.” 아빠가 말씀했어요.

폴은 매일 나가서 정원을 보았어요. 폴이
 물을 주자, 얼마 되지 않아 작은 새싹이
 나왔어요. 잎이 더 커졌어요. 폴은 잡초를
 조심스레 뽑아 주었어요.





가을이 되자 폴의 호박 덩굴이 무성해졌어요. 커다란 주황빛 호박도 있었어요!
 폴은 아빠를 모셔와 보여 드렸어요. “호박 덩굴을 잘 돌봐 주었구나!” 아빠가 말씀했어요.
 “네! 그리고 저 자신도 잘 돌볼 거예요, 저도 클 수 있게 말이에요.” 폴이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더 크면, 저도 에릭 형처럼 선교 사업을 나갈 수 있어요!”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호박밭

풀은 호박을 몇 개 키웠나요?
숨은 그림을 찾을 수 있나요? ■



세상 하나뿐인 나

작사: 켈 핀보로우
작곡: 마이클 에프 무디

가볍고 활기차게 ♩ = 96-104

mf

1. 세 - 상 엔 수 많 은 어
절 합 과 순 중 진

린 실 을 가 배 있 워 네 요 모 두 가 특 별 한 하 나 님 주

느리게 *본래 빠르게로*

의 자 녀 라 네 세 상 하 나 뿐 인 신 - 양 에 자 란 나 세
님 사 랑 하 네 세 상 하 나 뿐 인 용 - 기 로 자 란 나 세

상 하 나 뿐 인 나 는 주 님 빛 가 가 운 데 걸 어 가 리 라
상 하 나 뿐 인 나 는 주 님 빛 가 가 운 데 걸 어 가 는 나

1.

(짝) 하 나 뿐 인 하 나 님 의 뜻 대 로 자 라 리 — 2. 진

2.

나 님 의 뜻 대 로 자 라 리 나 는 하 나 님 의 뜻 대 로 자 라 리

느리게 *점점 느리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안전으로 향하는 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경고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증인의 법을 통해서, 즉 권능 있는 증인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마음에는 한이 없는 듯 합니다. 또한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길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또한 그것은 그들 중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질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그분의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에게서 권능을 받은 종들은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안전한 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838년 가을, 미주리 북부 지역에서 성도와 주민 간의 긴장감이 고조됐을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모든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에게 파웨스트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 농장에 살거나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즈 밀”이라고 불리는 작은 정착촌의 설립자인 혼 형제에게 구체적으로 권고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은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조셉 형제는 방앗간 소유자인 혼 형제에게 전갈을 보내 그곳에 살던



형제들에게 짐을 꾸려 파웨스트로 오라고 알렸지만 혼 형제는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Philo Dibble, in “Early Scenes in Church History,” in *Four Faith Promoting Classics* [1968], 90) 훗날 선지자 조셉은 자기 역사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구하도록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History of the Church*, 5:137) 그런 다음 선지자는 그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따랐더라면 혼즈 밀의 무죄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슬픈 진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어디에서 슬픔과 죄로부터 안전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권고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고들을 인식할

수 있는 한 가지 열쇠는 계속해서 그 경고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연차 대회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우리의 선지자가 이전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두 번째의 증인이 되고, 때로는 세 번째의 증인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 사도 바울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고린도후서 13:1)라고 기록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경고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증인의 법을 통해서, 즉 권능 있는 증인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반복된다고 느낄 때,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런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독생자를 보내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필멸의 상태에 있을 때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상태의 큰 위험 속에 쉽게 빠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무시한 악마의 유혹으로, 위험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점을 아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구주께서는 신권의 열쇠를 주셔서 들을 귀와 순종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

“권고에서 안전한 길을 찾음”, 리아호나, 1997년 7월호, 24~26쪽에서 발췌함.

통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친절할 말을 서로 합니까?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보면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1. 개인적으로나 자녀 앞에서 진심으로 동반자를 칭찬한 것은 마지막으로 언제였는가? 2. 기도하며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사랑을 전하며 배우자를 위해 신앙으로 진지하게 간구한 것은 마지막으로 언제였는가? 3. 상처가 될 법한 말을 스스로 멈춘 것은 마지막으로 언제였는가? 4. ‘그렇게 했어야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말을 덧붙이지 않고 사과하며 겸손하게 용서를 구한 것은 마지막으로 언제였는가? 5. ‘이기는’ 대신 행복하기를 택한 것은 마지막으로 언제였는가?”

린다 케이 버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우리는 함께 올라가게 될 것이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31쪽.

이번 호에서

청년 성인

진정한 의도로 생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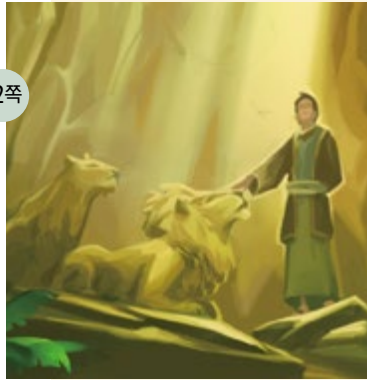
여러분의 결정에서 “왜”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올바른 이유로 올바른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도적인 삶을 사는
것을 배움!



44쪽

청소년

62쪽



경전에 나오는 놀라운 청소년들

경전에 나오는 청소년들이 마주했던 어려움들은
여러분이 겪는 것과 달랐지만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그들의 용기와 신앙 그리고 순종의
모범을 따를 수 있다.

어린이

도움을 찾음

테이트는 텔레비전에서 본 것이 계속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72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